

KREI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김경필·송우진·염정완·박서윤

KREI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김경필 · 송우진 · 엄정완 · 박서윤

연구 담당

김경필 | 선임연구위원 | 총괄, 제1장 집필

송우진 | 연구위원 | 제5, 7장 집필

염정완 | 연구위원 | 제3, 4, 6, 7장 집필

박서윤 | 연구위원 | 제2장 집필

해외농업시리즈 2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등 록 | 제 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1.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I S B N | 979-11-6149-559-0 93520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1. 서론	1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방법 및 범위	3
2. 인도네시아 국가 개황	5
2.1. 국가 개요	5
2.2. 인구 동향	7
2.3. 경제 동향	8
2.4. 농지 면적	10
3. 인도네시아 농업 생산	11
3.1. 주요 농축산물 생산 동향	11
3.2.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Plantation)	17
4.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21
4.1. 농식품 교역 동향	21
4.2. 농식품 수출 동향	23
4.3. 농식품 수입 동향	32
5.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	41
5.1. 농업정책 동향	41
5.2. 식품법(Law 18/2012 Concerning Food) 이후 농업 정책	45
5.3. 농업 생산자 지원	48
5.4. 시사점	50

6. 한·인도네시아 FTA와 농식품 교역	51
6.1.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	51
6.2.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	59
6.3.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	60
6.4.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 동향	67
7. 요약 및 결론	71
7.1. 요약	71
7.2. 결론	74
참고문헌	77

제2장

〈표 2-1〉 인도네시아 인구 동향(1980~2020년) 8
 〈표 2-2〉 인도네시아 경제 및 산업 동향(2016~2020년) 9
 〈표 2-3〉 인도네시아의 농지 면적 추이(2015~2019년) 10

제3장

〈표 3-1〉 인도네시아 농산물 재배 면적(2015~2019년) 12
 〈표 3-2〉 인도네시아 농산물 생산량(2015~2019년) 13
 〈표 3-3〉 인도네시아 농산물 단수(2015~2019년) 14
 〈표 3-4〉 인도네시아 축산물 사육 규모(2015~2019년) 15
 〈표 3-5〉 인도네시아 축산물 생산량(2015~2019년) 16
 〈표 3-6〉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동향(2016~2020년) 18
 〈표 3-7〉 인도네시아 대농장 생산 동향(Estates Area and Production by Crops, 2016~2020년) 19

제4장

〈표 4-1〉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2016~2020년) 22
 〈표 4-2〉 인도네시아 농식품 주요 교역 국가(2016~2020년) 23
 〈표 4-3〉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2016~2020년) 24
 〈표 4-4〉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출 품목 비교 26
 〈표 4-5〉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기타조제품(HS 21류) 수출 국가 비교 ... 26
 〈표 4-6〉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담배(HS 24류) 수출 국가 비교 27
 〈표 4-7〉 인도네시아 농식품 주요 수출 국가(2016~2020년) 27
 〈표 4-8〉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국가 비교 28
 〈표 4-9〉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 품목 비교 29

〈표 4-10〉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곡물조제(HS 19류) HS 6단위 품목 비교	30
〈표 4-11〉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對미국 농식품 수출 품목 비교	30
〈표 4-12〉 인도네시아 동식물유(HS 15류) 수출 동향(2016~2020년)	31
〈표 4-13〉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 동향(2016~2020년)	32
〈표 4-14〉 인도네시아 농식품 주요 수입 국가(2016~2020년)	34
〈표 4-15〉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품목	35
〈표 4-16〉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과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 품목 분석	36
〈표 4-17〉 인도네시아 곡물(HS 10류) 수입 동향(2016~2020년)	37
〈표 4-18〉 인도네시아 조제사료(HS 23류) 수입 동향(2016~2020년)	38
〈표 4-19〉 인도네시아 당류설탕(HS 17류) 수입 동향(2016~2020년)	40

제5장

〈표 5-1〉 인도네시아의 농업정책 동향	43
〈표 5-2〉 인도네시아 쌀 경작 체계 관련 정부 프로그램	45

제6장

〈표 6-1〉 민감품목군 분류 상한선 및 일반민감품목의 관세 인하 일정	55
〈표 6-2〉 한·ASEAN FTA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양허안	56
〈표 6-3〉 한·인니 CEPA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 내용	57
〈표 6-4〉 한·인니 CEPA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58
〈표 6-5〉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교역 동향(2016~2020년)	59
〈표 6-6〉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부류별 교역 동향(2016~2020년)	60
〈표 6-7〉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2016~2020년)	61
〈표 6-8〉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주요 가공식품 수출 동향(2016~2020년)	62
〈표 6-9〉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주요 임산물 수출 동향(2016~2020년)	63

〈표 6-10〉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주요 곡류, 과일·채소, 축산물 수출 동향 (2016~2020년)	64
〈표 6-11〉 인도네시아의 쌀기 수급 현황(2016~2020년)	65
〈표 6-12〉 인도네시아의 배 교역 현황(2016~2020년)	66
〈표 6-13〉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 동향(2016~2020년)	67
〈표 6-14〉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주요 임산물 수입 동향(2016~2020년)	68
〈표 6-15〉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주요 가공식품 수입 동향(2016~2020년) ..	69
〈표 6-16〉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주요 곡류 수입 동향(2016~2020년)	70
〈표 6-17〉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주요 과일·채소 및 축산물 수입 동향 (2016~2020년)	70

제2장

〈그림 2-1〉 인도네시아 지도 6
 〈그림 2-2〉 인도네시아 전체 및 산업별 국내총생산 변동 추이
 (2000~2020년) 10

제4장

〈그림 4-1〉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2000~2020년) 24
 〈그림 4-2〉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 동향(2000~2020년) 33

제5장

〈그림 5-1〉 품목별 정부 정책지원 규모 49
 〈그림 5-2〉 인도네시아 농업 보조 동향 50

제6장

〈그림 6-1〉 한·ASEAN FTA 협정 구성 52
 〈그림 6-2〉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53
 〈그림 6-3〉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약속: 한국 및
 ASEAN 선발 6개국 54
 〈그림 6-4〉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2000~2020년) 61
 〈그림 6-5〉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 동향(2000~2020년) 68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7개국과의 17건의 FTA가 발효됨.
 - 체결된 17건의 FTA 이외에 현재 추가로 FTA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 예정인 협정 건수는 15개국과의 4건임.¹⁾
 - 기존 FTA 협상 재개 및 신규 국가와 협상이 진행 중인 FTA는 19개국과의 9건임.
-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고,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를 통해 전체 농산물(1,343개) 중 803개 품목(59.8%)에 대해 관세 철폐를 적용받음.²⁾
 -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의 ‘아세안 6개국’³⁾에 포함되며, 일반품목군(Normal Track: NT)에 대해 2012년까지 관세를 모두 철폐함.

1) 2021년 11월 기준임.

2) 해당 내용은 FTA 강국, KOREA의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 설명자료.”(<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3/id/2/>)의 내용과 지성태 외(2016)의 『농업부문 한·아세안 FTA 이행 실태와 시사점』을 참고함.

3) 한·ASEAN FTA 양허안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아세안 6개국’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CLMV 국가’로 구분함. 또한, CLMV 국가 중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높은 베트남을 따로 구분함.

-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 SL)에 대해서는 한·ASEAN FTA 양허안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12년 1월까지 관세율을 20%로 인하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까지 0~5%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함.
-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은 1) 50% 관세율 상한 설정, 2) 20%만큼 관세 감축, 3) 50%만큼 관세 감축, 4) TRQ 설정, 5) 양허제외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시장을 보호함.

○ 한·ASEAN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주력품목(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와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2020년 12월 18일 정식으로 서명함.⁴⁾

-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1년 5월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2019년 11월 25일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됨.
-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우리나라는 추가로 355개(전체 농산물: 1,343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수출 관심품목인 사과, 배, 감은 즉시 철폐, 딸기는 3년 철폐, 커피음료는 10년 철폐하기로 협의함.

○ 적도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섬나라 국가임. 인도네시아의 국가면적과 인구는 각각 한국의 9배, 5배 수준이고,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4.6% 수준임.

-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 내외로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농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32.5%이고 주요 생산 품목은 팜오일, 쌀, 옥수수 등임. 플랜테이션 농장에서는 주로 팜오일, 고무, 코코넛, 사탕수수 등이 재배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식품 수출국가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등이며, 주요 수출

⁴⁾ 해당 내용은 FTA 강국, KOREA의 “한·인도네시아 CEPA 일지.”(<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3/id/1/>) 및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3/id/2/>)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품목은 동식물유, 커피·차, 코코아 종자, 과실조제품, 종자대두 등임. 주요 수입 품목은 곡물, 조제사료, 당류설탕 등임.

- 한·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과 관세 인하에 따라 양국 간 농산물 교역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농업 생산 및 교역 현황에 대한 이해와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인도네시아의 농업 및 교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농업 및 교역 동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임.

1.2. 연구 방법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농업 분야 산업 동향 및 수급 동향은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함.
 - 인도네시아 지형 및 기후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가루다 항공 등의 자료를 활용함.
 - 인도네시아 인구·경제동향 관련 주요 자료는 The World Bank Database를 활용하였으며, 농지 면적 자료는 UN의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통계자료를 이용함.
 - 주요 농축산물 생산동향 관련 주요 자료는 UN의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플랜테이션 관련 자료는 인도네시아의 STATISTICS INDONESIA(Badan Pusat Statistik) 통계자료를 이용함.
 -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 자료는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였으며,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내부자료)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참고 및 활용함.

- 인도네시아 농업정책 관련 자료는 관련 문헌자료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인도네시아 농업정책은 Rencana Strategis Kementerian Pertanian 2015-2019⁵⁾,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OECD), Trade Policy Review(WTO), 김종선·최정만(2020)의 자료를 참고 및 활용하여 정리함.

-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기본정보로 면적, 인구 등의 국가 개황과 교역 동향을 제시함.
 - 인도네시아 농업 생산 동향과 수출입 정보를 제시하고, 농업 정책 분야를 포함함.
 -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역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양국 간 교역 동향을 제시함.

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 의뢰(2021. 9. 5.)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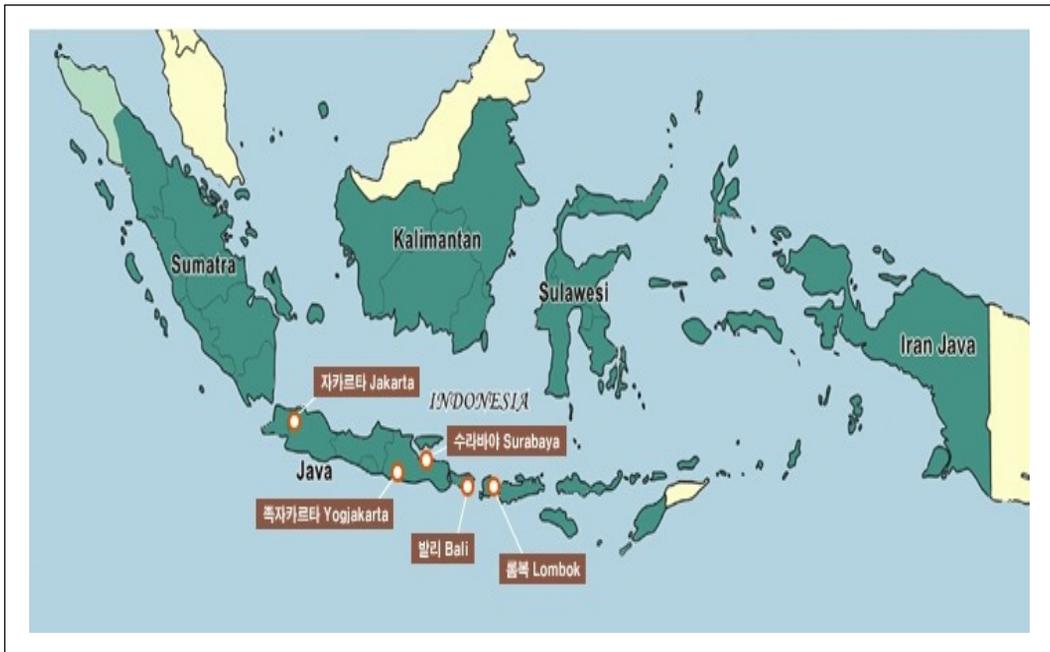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국가 개황

2.1. 국가 개요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음. 국토 면적은 1,904,569km²로 한반도 면적의 약 9배임.
 - 인도네시아 해역은 테티스해 구조대와 환태평양 구조대가 이어지는 곳으로 화산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총 400개의 화산 중 78개가 활동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섬나라로 약 1만 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섬들에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술라웨시, 뉴기니 등이 있음.
 - 수마트라섬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섬으로 면적은 473,481km²고, 활화산으로 이루어진 서해안과 큰 저수지가 이어지는 동해안으로 구분됨. 동쪽 습지는 대부분 농경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유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자바섬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자바섬의 서쪽 끝에 위치함. 또한 섬을 가로지르는 화산맥으로 인해 토지가 비옥하여 생산물이 풍부해 농경에 적합함.

- 보르네오섬(칼리만탄주)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말레이제도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 석탄, 금, 목재, 고무 등 자원이 풍부한 섬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보르네오섬은 하나의 섬에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세 국가가 함께 있는 유일한 섬임.

〈그림 2-1〉 인도네시아 지도



자료: 가루다항공(<https://www.garuda-indonesia.com/kr/ko/index>, 검색일: 2021. 10. 26.).

○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적도를 중심으로 위치해 고온다습한 열대성 몬순기후⁶⁾(우기와 건기)를 나타내고 있음. 연평균 기온은 약 25~27℃이고, 강수량은 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적도 부근 지역을 제외하면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함.

- 강수량의 경우 저지대 지역은 평균 1,700~3,200mm이고, 일부 산악 지역은 평균 3,050~3,700mm 정도임.

⁶⁾ 열대 몬순 기후 또는 열대 계절풍 기후는 여름에는 바다에서 오는 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습윤한 기후인 우기와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건기로 구분됨(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97%B4%EB%8C%80_%EB%AA%AC%EC%88%9C_%EA%B8%B0%ED%9B%84, 검색일: 2021. 11. 10.).

- 적도 부근의 연중 강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몬순의 영향을 받아 11월에서 3월까지의 우기, 4월에서 11월까지의 건기로 구별됨.

2.2. 인구 동향

-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2020년)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5배 큰 규모임.
 -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인구수는 약 1억 5천만 명에서 2억 7천만 명으로 85.5%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후 인도네시아 인구는 연평균 1.1% 증가하고 있음.
 - 수도인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Jawa)섬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56.1%가 집중되어 있으며,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임.
- 전체 인구의 43.4%(2020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도시 인구의 증가로 감소하고 있음.
 - 농촌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1980년대로 농촌인구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였지만, 2020년 43.4%로 감소함.
 - 생산 가능 인구⁷⁾ 비중은 1980년 55.3%에서 2020년 6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여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함.

7) 생산 가능 인구(The working age population)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인구를 의미하며, OECD에서는 해당 연령을 15~64세로 정의하고 있음.

〈표 2-1〉 인도네시아 인구 동향(1980~2020년)

단위: 천 명,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80	'20/'19
총인구	147,448	181,413	211,514	241,834	258,383	270,626	273,524	85.5	1.1
농촌 인구	114,856 (77.9)	125,930 (69.4)	122,674 (58.0)	121,125 (50.1)	120,631 (46.7)	119,116 (44.0)	118,597 (43.4)	3.3	-0.4
도시 인구	32,592 (22.1)	55,483 (30.6)	88,840 (42.0)	120,709 (49.9)	137,752 (53.3)	151,510 (56.0)	154,927 (56.6)	375.4	2.3
생산 가능 인구	81,596 (55.3)	108,440 (59.8)	136,656 (64.6)	160,117 (66.2)	173,545 (67.2)	183,307 (67.7)	185,453 (67.8)	127.3	1.2

주 1) ()는 전체인구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비중 및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The World Bank Database(<https://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21. 10. 26.).

2.3. 경제 동향

○ 인도네시아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 584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870달러, 경제성장률은 -2.07%로 나타남.

-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는 한국(1조 6,379억 달러)의 64.6% 수준임.
- 2016~2019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 내외로 안정적이었으나, 2020년 COVID-19 확산의 영향 등으로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2.07%)을 기록함.
- 인도네시아는 경기회복을 위해 정책예산을 전년 지출 대비 21% 증가한 492억 달러(699조 루피아)를 배정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COVID-19 백신 보급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사회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임.⁸⁾

○ 인도네시아의 산업은 크게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되고, 2020년 각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차 산업 13.7%, 2차 산업 38.3%, 3차 산업 44.4%임.

⁸⁾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인도네시아 개관 자료(<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916114918937.pdf&rs=/viewer/result/202111>, 검색일: 2021. 11. 12.).

- 3차 산업의 비중은 2016년 43.6%에서 2020년 44.4%로 0.8%p 증가한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1차 산업의 경우 1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2차 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2014년 이후 3차 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함.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한 2009년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관광, 서비스 등 3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함.9)

〈표 2-2〉 인도네시아 경제 및 산업 동향(2016~2020년)

단위: %, 달러, 십억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경제성장률	5.03	5.07	5.17	5.02	-2.07		
1인당 명목 GDP	3,562.8	3,837.6	3,893.9	4,135.2	3,869.6	8.6	-6.4
명목 GDP	931.9	1,015.6	1,042.3	1,119.1	1,058.4	13.7	-5.4
1차 산업	125.6 (13.5)	133.6 (13.2)	133.5 (12.8)	142.3 (12.7)	145.0 (13.7)	15.5	2.0
2차 산업	366.3 (39.3)	399.9 (39.4)	414.1 (39.7)	435.9 (39.0)	405.0 (38.3)	10.6	-7.1
3차 산업	406.7 (43.6)	443.0 (43.6)	452.4 (43.4)	494.9 (44.2)	469.9 (44.4)	15.6	-5.0
기타 산업	33.3 (3.6)	39.1 (3.9)	42.3 (4.1)	46.0 (4.1)	38.5 (3.6)	15.6	-16.4

주 1)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1차 산업(1-5), 2차 산업(10-45), 3차 산업(50-99)을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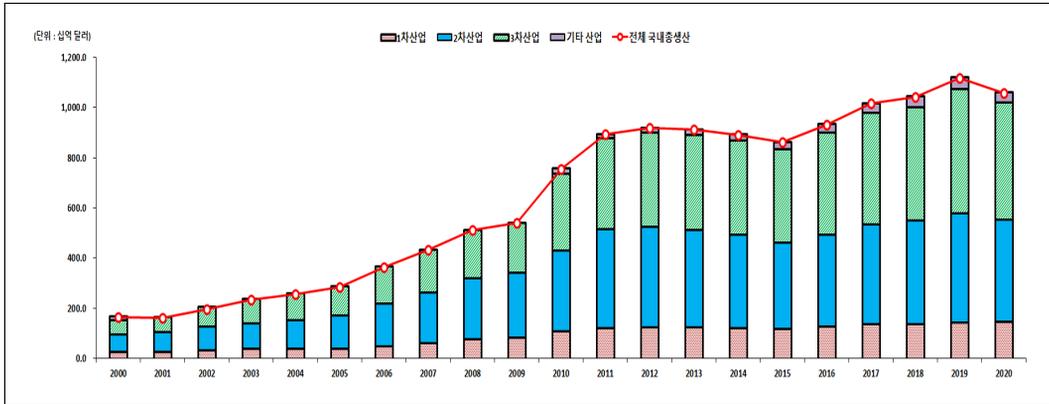
2) ()는 전체인구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3) 비중 및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The World Bank Database(<https://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21. 11. 2.).

9)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 속에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물가상승률 통제, 빈곤층 지원, 구매력 유지,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했으며,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령을 공포함. 또한,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화폐, 재정, 산업별로 정책을 세분화함. 이러한 결과 소비자 구매력 향상, 인프라 개발, 관광지 경쟁력 강화, 투자 및 수출 입 확대 등으로 산업 구조 및 트렌드에 변화가 발생함.

〈그림 2-2〉 인도네시아 전체 및 산업별 국내총생산 변동 추이(2000~2020년)



자료: The World Bank Database(<https://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21. 11. 2.).

2.4. 농지 면적

○ 인도네시아의 2019년 농지 면적은 6,230만 ha로 국토 면적의 32.5%이고, 농지 면적 가운데 경작면적은 2,630만 ha로 농지 면적 대비 42.2% 수준임.

- 한국의 경작면적은 국토 면적의 13.6% 수준인 136만 ha(2019)이고, 인도네시아의 경작면적은 한국의 약 19.3배임.¹⁰⁾
- 인도네시아 농지 면적은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바이오원료 수요의 증가로 팥유와 옥수수의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3〉 인도네시아의 농지 면적 추이(2015~2019년)

단위: 천 ha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19/'15
국토 면적(Country area)	191,358	191,358	191,682	191,686	191,686	0.2
토지 면적(Land area)	187,752	187,752	187,752	187,752	187,752	-
농지 면적(Agricultural area)	57,300	60,200	62,300	62,300	62,300	8.7
경작 면적(Arable area)	23,800	25,200	26,300	26,300	26,300	10.5

주 1) 농지 면적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 면적이며, 경작면적은 실제로 작물이 재배되는 토지 면적임.

2)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RL>, 검색일: 2021. 10. 20.).

¹⁰⁾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RL>, 검색일: 2021. 10. 20.)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함.

3

인도네시아 농업 생산

3.1. 주요 농축산물 생산 동향

○ 2019년 재배 면적¹¹⁾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목은 팜유 열매이며, 그다음으로 쌀(벼), 옥수수 등의 순서임.

- 2019년 기준 팜유 열매의 재배 면적은 1,468만 ha로 인도네시아 농지 면적(Agriculture Land)¹²⁾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팜유 열매 다음으로 쌀(벼)이 17.1%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팜유 열매의 2019년 재배 면적은 1,468만 ha로 2015년 대비 36.5%, 전년 대비 2.4% 증가함.
- 인도네시아의 쌀 재배 면적은 매년 변동하고 있으며, 2019년 쌀의 재배 면적은 1,068만 ha로 2015년, 전년 대비 각각 6.2% 감소함.
- 옥수수 평균(2015~2019년) 재배 면적은 인도네시아 농지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2019년 재배 면적은 2015년 대비 49.0% 증가한 564만 ha로 증가 추세임.

11) 본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재배 면적은 수확 면적(Area harvested)을 의미함.

12)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1. 10. 2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19년 농지 면적은(Agriculture Land) 6,230만 ha이고, 2015~2019년 평균 농지 면적은 6,088만 ha임.

〈표 3-1〉 인도네시아 농산물 재배 면적(2015~2019년)

단위: 만 ha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19/'15	'19/'18
팜유 열매	1,075	1,120	1,405	1,433	1,468	36.5	2.4
쌀(벼)	1,139	1,129	1,147	1,138	1,068	-6.2	-6.2
옥수수	379	444	553	568	564	49.0	-0.6
천연고무	362	364	366	367	368	1.7	0.3
코코넛	303	290	285	280	280	-7.6	0.0
코코아(콩)	171	170	166	161	160	-6.4	-0.6
커피콩	123	123	124	125	126	2.3	0.4
카사바	95	82	77	70	64	-32.6	-8.2
대두	61	58	36	72	62	1.0	-14.3
정향	54	55	56	57	57	6.3	0.1
캐슈너트	52	51	49	50	50	-5.1	-1.6
사탕수수	46	45	42	42	44	-2.7	6.7
고추류	26	26	31	31	30	17.5	-3.2
땅콩	45	44	37	35	27	-41.1	-24.4
망고류	18	17	20	24	25	41.6	5.3
육두구	16	18	20	23	23	41.1	1.0
견과류	21	22	22	22	22	7.0	0.5
신선열대과일	17	22	21	21	21	24.0	0.7
담배	21	16	20	20	20	-2.1	0.1
케이폭 열매	17	18	18	19	20	17.0	3.7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1. 10. 20.).

○ 2019년 생산량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팜유 열매이며, 그다음으로 쌀(벼), 옥수수 등의 순서임.

- 팜유 열매 생산량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 팜유 열매 생산량은 2015년 대비 34.0%,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이는 팜유 재배 면적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쌀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감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2019년 쌀 생산량은 5,460만 톤으로 2015년 대비 10.5%, 전년 대비 7.8% 감소함.
- 2019년 옥수수 생산량은 3,069만 톤으로 2015년 대비 56.5%,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옥수수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 추세를 보임.

〈표 3-2〉 인도네시아 농산물 생산량(2015~2019년)

단위: 천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19/'15	'19/'18
팜유 열매 ¹³⁾	183,365	190,100	237,317	240,894	245,633	34.0	2.0
쌀(벼)	61,031	59,393	59,429	59,201	54,604	-10.5	-7.8
옥수수	19,612	23,578	28,924	30,254	30,693	56.5	1.5
사탕수수	27,000	28,000	28,000	29,500	29,100	7.8	-1.4
코코넛	17,500	17,400	17,200	17,100	17,129	-2.1	0.2
카사바	21,801	20,261	19,054	16,119	14,587	-33.1	-9.5
바나나	9,496	7,007	7,163	7,264	7,281	-23.3	0.2
천연고무	3,145	3,307	3,680	3,630	3,449	9.6	-5.0
망고류	2,176	2,184	2,566	3,084	3,295	51.4	6.8
신선열대과일	2,220	2,717	2,637	2,662	2,686	21.0	0.9
고추류	1,915	1,962	2,359	2,542	2,589	35.2	1.8
오렌지	1,856	2,138	2,295	2,510	2,563	38.1	2.1
파인애플	1,730	1,396	1,796	1,805	2,196	27.0	21.7
고구마	2,298	2,169	1,914	1,806	1,806	-21.4	0.0
건조양파	1,229	1,447	1,470	1,503	1,580	28.6	5.1
양배추류	1,443	1,513	1,443	1,408	1,413	-2.1	0.4
신선과일	1,306	1,328	1,321	1,329	1,337	2.4	0.6
감자	1,219	1,213	1,165	1,285	1,315	7.8	2.3
토마토	878	883	963	977	1,020	16.2	4.5
파파야	851	904	875	888	987	15.9	11.2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1. 10. 20.).

○ 2019년 인도네시아 농작물의 단수를 살펴보면, 2015년과 비교하여 단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코코아(콩)이며, 그다음으로 호박류, 향신료류, 고구마 순으로 나타남.

- 코코아(콩) 단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코코아(콩) 단수는 ha당 4,898hg¹⁴⁾으로 2015년 대비 41.1%, 2018년 대비 2.8% 증가함.
- 2016년 호박류의 단수는 ha당 683,422hg으로 증가한 후, 2018년 ha당 586,792hg까지 감소하였다가 2019년 ha당 623,120hg으로 증가함. 2019년 호박류의 단수는 2015

13) 팜유 열매의 2019년 전 세계 생산량은 4.15억 톤으로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59.1%를 차지함.

14) hg는 헥토그램을 의미하며 1hg은 100g임.

년 대비 36.4%,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 단수와 비슷한 수준임.

- 향신료류의 단수는 2018년 ha당 278,750hg까지 증가하였지만, 2019년 ha당 270,976hg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함. 향신료류의 2019년 단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지만, 2015년 대비 32.3% 증가한 수준임.
- 고구마의 단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고구마 단수는 ha당 209,164hg으로 2015년 대비 30.3%,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 인도네시아 농산물 단수(2015~2019년)

단위: hg/ha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19/'15	'19/'18
코코아(콩)	3,471	3,861	3,562	4,763	4,898	41.1	2.8
호박류	456,976	683,422	635,704	586,792	623,120	36.4	6.2
향신료류	204,813	213,424	202,626	278,750	270,976	32.3	-2.8
고구마	160,533	175,554	180,205	199,145	209,164	30.3	5.0
콜리플라워 및 브로콜리	105,751	119,142	113,524	121,390	126,804	19.9	4.5
가지	111,997	113,710	121,953	123,842	130,908	16.9	5.7
커피콩	5,198	5,204	5,797	6,035	6,049	16.4	0.2
토마토	160,924	153,107	173,104	180,356	186,260	15.7	3.3
고추류	74,888	75,382	76,075	81,894	86,179	15.1	5.2
버섯류	624,720	875,931	779,368	705,727	717,814	14.9	1.7
시금치	35,602	36,879	36,521	40,847	40,682	14.3	-0.4
사탕수수	592,340	625,908	666,435	709,710	656,042	10.8	-7.6
파인애플	1,160,805	1,163,461	1,158,701	1,223,072	1,283,276	10.6	4.9
차	11,543	12,281	12,907	12,756	12,672	9.8	-0.7
옥수수	51,742	53,105	51,111	49,818	56,660	9.5	13.7
오이류	102,745	101,914	106,743	108,889	111,451	8.5	2.4
천연고무	8,686	9,092	10,058	9,888	9,363	7.8	-5.3
망고류	123,001	129,849	127,557	129,562	131,470	6.9	1.5
코코넛	57,756	60,000	60,351	61,071	61,174	5.9	0.2
감자	182,027	182,549	154,044	187,057	192,700	5.9	3.0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1. 11. 25.).

○ 인도네시아 축산물 사육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사육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닭이고, 그다음으로 오리, 염소, 양 순서임.

- 인도네시아의 닭 사육 규모는 2016년 21억 마리에서 2017년 35억 마리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 사육 규모는 37억 마리로 2015년 대비 89.2%, 전년 대비 0.7% 증가함.
- 닭 다음으로 사육 규모가 큰 오리의 2019년 사육 규모는 6천만 마리로 2015년 대비 35.3%, 전년 대비 3.0% 증가함. 인도네시아 오리 사육 규모도 닭 사육 규모와 비슷하게 2017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 소 사육 규모는 2015년 1,542만 마리에서 2019년 1,712만 마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돼지의 2019년 사육 규모도 2015년 대비 14.3% 증가한 892만 마리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인도네시아 염소와 양의 사육 규모는 2016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인도네시아 버펄로와 말은 2018년까지 사육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2019년 사육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27.6%, 4.1% 증가함.

〈표 3-4〉 인도네시아 축산물 사육 규모(2015~2019년)

단위: 천 마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19/'15	'19/'18
닭	1,968,641	2,088,079	3,481,181	3,700,618	3,725,213	89.2	0.7
오리	45,322	47,424	57,557	59,552	61,321	35.3	3.0
염소	19,013	17,847	18,208	18,306	18,976	-0.2	3.7
양	17,025	15,717	17,142	17,611	17,794	4.5	1.0
소	15,420	16,004	16,429	16,433	17,119	11.0	4.2
돼지	7,808	7,903	8,261	8,254	8,923	14.3	8.1
버펄로	1,347	1,355	1,322	894	1,141	-15.3	27.6
말	430	424	409	378	393	-8.6	4.1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1. 10. 28.).

○ 2019년 생산량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은 계란이고, 그다음으로 닭고기, 우유, 쇠고기 순임.

- 인도네시아 계란 생산량은 2016년 149만 톤에서 2017년 463만 톤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2019년 계란 생산량은 475만 톤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 닭고기 생산량은 닭 사육 규모의 확대에 따라 2017년 318만 톤으로 크게 증가한 다음 2019년 350만 톤까지 증가함.
- 인도네시아의 2019년 우유 생산량은 100만 톤으로 2015년 대비 19.3%,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증가 추세에 있음.
- 인도네시아 쇠고기 생산량은 2016년 52만 톤까지 증가한 다음, 50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생산량은 49만 톤임.
- 인도네시아 돼지고기 생산량은 돼지 사육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생산량은 22만 톤으로 2015년 대비 32.2% 감소한 수준임.

〈표 3-5〉 인도네시아 축산물 생산량(2015~2019년)¹⁵⁾

단위: 천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19/'15	'19/'18
계란	1,372.8	1,485.7	4,632.8	4,688.1	4,753.4	246.2	1.4
닭고기	2,030.9	2,300.8	3,175.9	3,409.6	3,495.1	72.1	2.5
우유	835.1	912.7	928.1	951.0	996.4	19.3	4.8
쇠고기	506.7	518.5	486.3	498.0	490.4	-3.2	-1.5
돼지고기	330.2	339.6	317.4	215.8	224.0	-32.2	3.8
양고기	44.5	45.9	55.1	82.3	91.0	104.5	10.7
염소고기	64.9	67.8	70.4	70.2	72.6	11.7	3.4
오리고기	34.9	41.9	42.3	44.7	44.2	26.9	-1.0
버펄로고기	35.4	31.9	29.4	25.3	24.0	-32.3	-5.4
말고기	2.2	2.6	2.7	2.4	2.3	3.0	-4.0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1. 10. 28.).

15) 〈표 3-5〉에서 제시한 품목 이외에, 계란(닭 이외), 우유(염소, 양, 버펄로), 부속고기(소, 돼지, 양, 염소, 버펄로, 말), 가죽(소, 양, 염소, 버펄로), 지방(돼지, 소, 양, 염소, 버펄로), 천연섬유(양), 누에고치 생산량 자료도 FAO STAT에서 집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3.2.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Plantation)¹⁶⁾

- 인도네시아는 열대 지역의 기후 조건 아래 플랜테이션 형태의 농업이 발전하였으며, 플랜테이션 형태의 주요 생산 품목은 팜유,¹⁷⁾ 고무, 코코넛, 사탕수수, 커피 등임.
- 주요 플랜테이션 형태의 생산 품목인 팜유의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팜유 재배 면적은 1,486만 ha로 2016년 대비 32.6%, 전년 대비 2.8% 증가함.
 - 팜유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임. 2020년 팜유 생산량은 4,830만 톤으로 2016년 대비 52.2%, 전년 대비 2.5% 증가함.
 - 팜유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고무의 2020년 생산량은 289만 톤으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감소 추세인 고무 생산량과 다르게, 고무 재배 면적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고무 재배 면적은 368만 ha임.
 - 코코넛 생산량은 코코넛 재배 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임. 2020년 코코넛 생산량은 281만 톤으로 2016년 대비 3.2%, 전년 대비 1.0% 감소함.
 - 커피 재배 면적은 125만 ha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재배 면적은 2017년 42만 ha로 감소한 이후 42만 ha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커피 생산량은 2018년 76만 톤으로 증가한 이후 7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생산량은 2020년 213만 톤 수준임.

¹⁶⁾ 플랜테이션(Plantation)의 의미는 상업 작물(Cash crop)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상업 농장을 의미하며, 주로 열대, 아열대 기후인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작물로 면화, 커피, 차, 코코아, 사탕수수, 팜유, 고무 등임(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lantation>, 검색일: 2021. 11. 2.).

¹⁷⁾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home>, 검색일: 2021. 11. 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팜유 생산량은 인도네시아가 1위이며, 그다음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등임.

〈표 3-6〉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동향(2016~2020년)

단위: 천 ha, 천 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팜유	면적	11,202	12,383	14,326	14,457	14,858	32.6	2.8
	생산량	31,731	34,940	42,884	47,120	48,297	52.2	2.5
고무	면적	3,637	3,659	3,672	3,676	3,681	1.2	0.1
	생산량	3,307	3,680	3,630	3,302	2,885	-12.8	-12.6
코코넛	면적	3,654	3,473	3,418	3,402	3,397	-7.0	-0.1
	생산량	2,904	2,854	2,840	2,840	2,812	-3.2	-1.0
커피	면적	1,247	1,239	1,253	1,245	1,243	-0.3	-0.2
	생산량	664	716	756	753	754	13.6	0.2
사탕수수	면적	458	420	416	413	421	-8.2	1.8
	생산량	2,333	2,191	2,172	2,227	2,131	-8.7	-4.3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STATISTICS INDONESIA(<https://www.bps.go.id/>, 검색일: 2021. 10. 20.).

○ 인도네시아의 플랜테이션은 대농장과 소농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팜유의 경우, 대농장에서 대부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앞서 살펴본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생산 동향과 같이 팜유, 고무, 커피, 사탕수수를 위주로 대농장의 생산 동향을 살펴보겠음.

- 대농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팜유 생산량¹⁸⁾은 팜유 대농장 면적 증가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팜유의 2020년 생산량은 3,838만 톤으로 2016년 대비 60.6%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0.6% 감소함.
- 팜유 대농장의 2020년 면적은 885만 ha로 2016년 대비 37.0%,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증가 추세에 있음.
- 대농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무의 생산량은 전체 고무 농장 면적과 같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0년 대농장 고무 생산량과 면적은 35만 톤, 38만 ha로 2016년 대비 41.8%, 31.0% 감소함.
- 대농장에서 생산하는 커피의 생산량 및 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각각 9만 톤, 22만 ha로 2016년 대비 73.0%, 54.2% 감소함.

¹⁸⁾ 팜유 생산량은 팜유(Palm oil)와 팜핵유(Palm kernel oil) 생산량의 합임.

- 사탕수수의 대농장 면적은 2019년 17만 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19만 ha로 회복함. 반면 사탕수수 생산량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0년 생산량은 98만 톤으로 나타남.
- 플랜테이션 생산에서 대농장은 주로 팜유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사탕수수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무와 커피의 경우 대농장의 생산 비중이 낮아 주로 소농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7〉 인도네시아 대농장 생산 동향(Estates Area and Production by Crops, 2016~2020년)

단위: 천 ha, 천 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팜유	면적	6,462 (57.7)	6,685 (54.0)	8,507 (59.4)	8,560 (59.2)	8,855 (59.6)	37.0	3.4
	생산량	23,895 (75.3)	26,099 (74.7)	33,104 (77.2)	38,633 (82.0)	38,383 (79.5)	60.6	-0.6
고무	면적	545 (15.0)	556 (15.2)	436 (11.9)	407 (11.1)	376 (10.2)	-31.0	-7.6
	생산량	603 (18.2)	630 (17.1)	519 (14.3)	375 (11.4)	351 (12.2)	-41.8	-6.4
커피	면적	48 (3.8)	47 (3.8)	43 (3.4)	24 (1.9)	22 (1.8)	-54.2	-9.1
	생산량	32 (4.8)	30 (4.2)	28 (3.7)	10 (1.3)	9 (1.1)	-73.0	-14.0
사탕수수	면적	208 (45.4)	192 (45.8)	180 (43.3)	174 (42.1)	192 (45.7)	-7.7	10.5
	생산량	1,102 (47.2)	977 (44.6)	897 (41.3)	958 (43.0)	976 (45.8)	-11.4	1.9

주 1) ()는 인도네시아 전체 플랜테이션에서 대농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비중 및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STATISTICS INDONESIA(<https://www.bps.go.id/>, 검색일: 2021. 10. 20.).

4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4.1. 농식품 교역 동향¹⁹⁾

○ 2020년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은 497억 달러이고, 교역액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이 63.8%, 농식품 수입액이 36.2%를 차지함.

- 2020년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교역액은 2016년 대비 15.7%, 전년 대비 8.0% 증가한 497억 달러임.
-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에서 농식품 수출액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46.9%) 이후 감소하여 최근에는 3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농식품 교역액과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을 비교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농식품 교역액은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의 6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²⁰⁾
 - * 2020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액의 23.1% 수준이고, 2020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액은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액의 150.1% 수준임.

¹⁹⁾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은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HS 부류별 01~24류(03류, 16류 제외)까지의 교역 자료를 집계하여 활용함.

²⁰⁾ UN Comtrade 자료 기준, 2020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교역액은 343억 달러임(수출액 73억 달러, 수입액 270억 달러).

〈표 4-1〉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농식품 교역액	42,967	49,802	49,674	46,024	49,725	15.7	8.0
농식품 수출액	27,016 (62.9)	32,540 (65.3)	30,247 (60.9)	27,748 (60.3)	31,728 (63.8)	17.4	14.3
농식품 수입액	15,950 (37.1)	17,262 (34.7)	19,427 (39.1)	18,276 (39.7)	17,997 (36.2)	12.8	-1.5
농식품 무역수지	11,066	15,278	10,820	9,473	13,731	24.1	45.0

주 1) ()는 농식품 교역액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비중 및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 인도네시아 농식품 주요 교역국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농식품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임. 그다음으로 미국,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등의 순서로 농식품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농식품 교역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농식품 교역액은 75억 달러로 2015년 대비 49.5%, 전년 대비 4.0%로 증가함.
-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2020년 농식품 교역액은 45억 달러로 2016년 대비 7.5%,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2017년(48억 달러)과 비교하면 6.8% 감소함.
- 인도네시아와 인도 간 농식품 교역액은 2017년 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 35억 달러로 감소함. 2020년 인도네시아와 인도 간 농식품 교역액은 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3% 증가함.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농식품 교역액은 2018년 25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23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 농식품 교역액은 20억 달러로 2016년 대비 26.0%,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2〉 인도네시아 농식품 주요 교역 국가(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1	중국	5,032	6,218	6,518	7,232	7,521	49.5	4.0
2	미국	4,220	4,868	4,636	4,420	4,536	7.5	2.6
3	인도	4,246	5,877	4,860	3,449	4,459	5.0	29.3
4	말레이시아	2,105	2,294	2,468	2,266	2,327	10.5	2.7
5	호주	2,759	2,917	2,514	2,063	2,042	-26.0	-1.0
6	브라질	1,774	1,532	1,253	1,133	2,025	14.1	78.8
7	파키스탄	1,575	1,765	1,821	1,359	1,833	16.4	34.9
8	태국	2,117	2,280	2,874	2,325	1,790	-15.4	-23.0
9	아르헨티나	1,335	1,123	1,364	1,748	1,705	27.7	-2.5
10	필리핀	924	1,127	1,292	1,337	1,312	41.9	-1.9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4.2. 농식품 수출 동향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액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요 수출 품목인 동식물유(HS 15류)의 변동에 기인함.

- 2020년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액은 317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7.4%, 전년 대비 14.3% 증가함.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동식물유(HS 15류) 수출액의 2020년 비중은 65.3%임.
- 동식물유 다음으로, 커피·차, 기타조제품, 코코아, 담배 등의 수출액이 높고, 상위 5개 부류의 2020년 수출액 합이 인도네시아 농식품 2020년 수출액의 82.3%를 차지함.

〈표 4-3〉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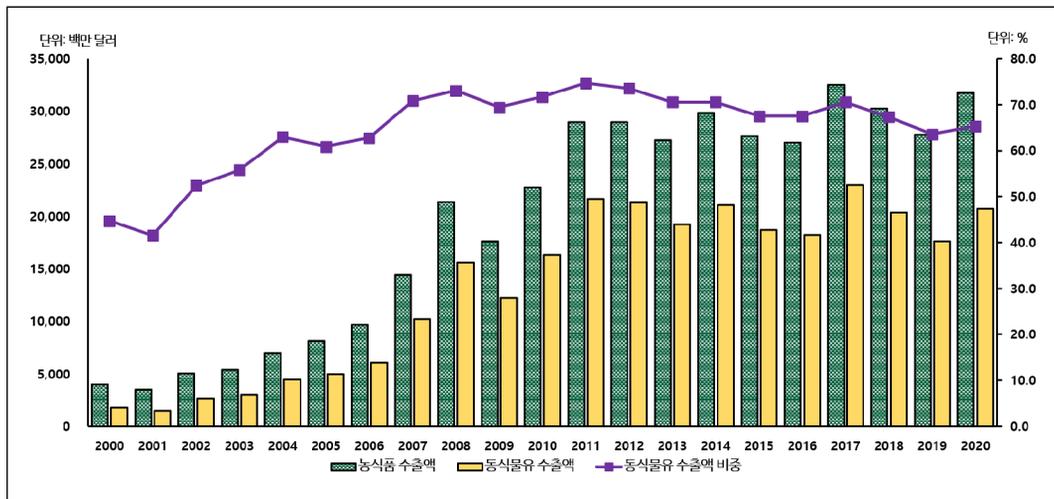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부류	HS 2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농식품		27,016	32,540	30,247	27,748	31,728	17.4	14.3
동식물유	15	18,232	22,966	20,346	17,635	20,721	13.7	17.5
커피·차	09	1,897	1,965	1,552	1,619	1,720	-9.3	6.2
기타조제품	21	949	1,026	1,186	1,309	1,273	34.2	-2.8
코코아	18	1,240	1,121	1,246	1,199	1,244	0.4	3.8
담배	24	1,010	1,140	1,197	1,208	1,151	14.0	-4.7
곡물조제	19	814	972	1,015	1,056	1,150	41.3	8.9
조제사료	23	555	605	802	802	983	77.1	22.6
과실견과	08	712	936	825	797	934	31.3	17.2
낙농품	04	230	316	335	417	597	160.0	43.2
과실조제	20	243	290	250	259	333	36.6	28.5
기타식물	14	106	145	163	204	317	198.7	54.9
종자대두	12	268	255	339	325	307	14.5	-5.4
당류설탕	17	225	232	264	282	307	36.8	9.1
채소부리	07	94	104	105	121	166	77.3	36.8
식물수액	13	83	95	142	160	144	73.3	-10.0
음료주류	22	178	179	228	171	132	-25.7	-22.9
맥아전분	11	54	67	62	59	96	78.5	64.0
산동물	01	57	64	61	66	80	40.3	22.0
동물사체	05	18	23	21	22	21	15.5	-4.5
식물인경	06	21	18	19	18	19	-11.2	4.2
곡물	10	12	4	75	2	18	45.1	992.2
식용설육	02	21	18	16	17	14	-31.6	-17.2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그림 4-1〉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2000~2020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출 품목을 비교²¹⁾하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곡물조제(HS 19류), 기타조제품(HS 21류), 담배(HS 24류), 음료주류(HS 22류), 과일조제(HS 20류)이며,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동식물유(HS 15류), 커피·차(HS 09류), 기타조제품(HS 21류), 코코아(HS 18류), 담배(HS 24류) 등임.
 - 우리나라의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73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액의 23.1% 수준이고, 우리나라 농식품 상위 5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2%임.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품목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상위 5개 수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수출 경합 가능성이 큰 품목은 기타조제품과 담배인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의 기타조제품과 담배의 2020년 수출액은 우리나라 대비 각각 102.2%, 110.4%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임.
 -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타조제품과 담배 수출액은 13억 달러, 1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모두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기타조제품 및 담배 품목을 수출하고 있음.
 - 담배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담배 수출 상위 5개국을 비교할 때, 겹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상위 10개국으로 확대하여 비교할 때, 일본, 태국, 중국(홍콩), 베트남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담배를 같이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일본으로 3억 달러의 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6천만 달러의 담배를 수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담배 수출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5.2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담배 수출 규모가 인도네시아보다 1.3배 크지만, 중국(홍콩)과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각각 1.1배, 2.4배 큼.

21)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출 품목의 비교는 각국의 對세계 농식품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품목을 선정하고 비교하였고, 이하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출입 품목 비교는 위의 기준에 따름.

〈표 4-4〉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출 품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부류	HS 2단위	2020년	부류	HS 2단위	2020년
-	농식품 수출액		7,318	농식품 수출액		31,728
1	곡물조제	19	1,410	동식물유	15	20,721
2	기타조제품	21	1,246	커피·차	09	1,720
3	담배	24	1,042	기타조제품	21	1,273
4	음료주류	22	879	코코아	18	1,244
5	과실조제	20	780	담배	24	1,151
6	종자대두	12	381	곡물조제	19	1,150
7	당류설탕	17	331	조제사료	23	983
8	조제사료	23	230	과실견과	08	934
9	과실견과	08	205	낙농품	04	597
10	채소부리	07	205	과실조제	20	333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9.).

〈표 4-5〉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기타조제품(HS 21류) 수출 국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국가	2020년	국가	2020년
-	세계	1,246	세계	1,273
1	중국	215	필리핀	466
2	미국	184	싱가포르	167
3	일본	148	말레이시아	108
4	베트남	79	사우디아라비아	72
5	러시아	67	태국	60
6	아시아 기타국	54	나이지리아	41
7	인도네시아	49	중국	29
8	중국(홍콩)	47	베트남	24
9	필리핀	44	아시아 기타국	21
10	싱가포르	43	호주	20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9.).

〈표 4-6〉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담배(HS 24류) 수출 국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국가	2020년	국가	2020년
-	세계	1,042	세계	1,151
1	일본	321	캄보디아	249
2	아랍에미리트	232	싱가포르	131
3	미국	165	말레이시아	101
4	태국	60	필리핀	94
5	중국(홍콩)	40	베트남	73
6	베트남	31	일본	61
7	아시아 기타국	29	호주	58
8	몽골	28	태국	46
9	중국(홍콩)	22	중국(홍콩)	44
10	리비아	19	벨기에	40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9.).

○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농식품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파키스탄 등이며, 중국으로 51억 달러, 인도로 35억 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對중국 수출액은 51억 달러이며, 2016년 대비 52.4%, 전년 대비 7.6% 증가함.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對중국 수출액은 인도네시아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6.0%를 차지함.
- 2017년 인도네시아의 對인도 농식품 수출액은 5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27억 달러까지 감소하였고, 2020년 35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함.

〈표 4-7〉 인도네시아 농식품 주요 수출 국가(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1	중국	3,324	4,058	4,104	4,709	5,065	52.4	7.6
2	인도	3,744	5,251	3,952	2,669	3,459	-7.6	29.6
3	말레이시아	1,627	1,714	1,845	1,727	1,905	17.1	10.3
4	미국	1,885	2,213	1,939	1,744	1,850	-1.9	6.1
5	파키스탄	1,503	1,665	1,526	1,229	1,736	15.5	41.2
6	필리핀	885	1,085	1,236	1,287	1,241	40.2	-3.6
7	네덜란드	1,361	1,629	1,481	1,125	1,117	-17.9	-0.7
8	베트남	742	733	853	710	989	33.4	39.2
9	싱가포르	1,018	1,016	915	874	864	-15.1	-1.1
10	스페인	757	1,006	772	639	854	12.8	33.8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출 국가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중국(홍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61.9%를 상위 5개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0억 달러 이상의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임.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상위 5개국 수출 국가를 비교해보면, 겹치는 국가는 중국, 미국으로 나타남. 중국과 미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규모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각각 4.6배, 1.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8〉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국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국가	2020년	국가	2020년
-	농식품	7,318	농식품	31,728
1	일본	1,456	중국	5,065
2	미국	1,149	인도	3,459
3	중국	1,111	말레이시아	1,905
4	베트남	451	미국	1,850
5	중국(홍콩)	363	파키스탄	1,736
6	아시아 기타국	312	필리핀	1,241
7	아랍에미리트	256	네덜란드	1,117
8	태국	238	베트남	989
9	호주	171	싱가포르	864
10	필리핀	169	스페인	854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9.).

○ 2020년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의 주요 품목은 동식물유(HS 15류)이며, 우리나라의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곡물조제(HS 19류)임. 곡물조제의 경우, 인도네시아도 중국으로 2020년 기준 2.2억 달러를 수출(우리나라 2.9억 달러)함.²²⁾

22)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 중 동식물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5%이고, 우리나라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 중 곡물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8%임.

〈표 4-9〉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 품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부류	HS 2단위	2020년	부류	HS 2단위	2020년
-	농식품 수출액		1,111	농식품 수출액		5,065
1	곡물조제	19	287	동식물유	15	3,570
2	기타조제품	21	215	낙농품	04	417
3	음료주류	22	155	곡물조제	19	219
4	과실조제	20	149	종자대두	12	170
5	당류설탕	17	109	조제사료	23	15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9.).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對중국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인 곡물조제를 HS 6단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 우리나라는 그 밖의 파스타(HS 1902.30)²³⁾를 중국으로 1억 5천만 달러(2020년)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이 對중국 곡물조제 수출액의 53.3%를 차지함. 그다음으로 영유아·어린이 조제식료품(HS 1901.10)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2020년 수출액은 6천만 달러임.
 - *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곡물조제 수출 품목은 주로 와플과 웨이퍼(HS 1905.32)이며, 해당 품목의 2020년 수출액은 1억 3천만 달러이고, 對중국 곡물조제 수출액의 58.7%를 차지함. 그다음으로 스위트 비스킷(HS 1905.31)이 對중국 곡물조제 수출액의 27.7%를 차지하고 2020년 수출액은 6천만 달러임.
- 對중국 곡물조제 수출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겹치는 품목은 그 밖의 파스타(HS 1902.30), 기타 베이커리 제품(HS 1905.90)²⁴⁾, 스위트 비스킷(HS 1905.31)임.
 - *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밖의 파스타 수출 규모는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의 8.6배로 나타났고, 기타 베이커리 제품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수출 규모가 6.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스위트 비스킷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7.9배 큰 것으로 나타남.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HS 1902.30은 그 밖의 파스타로 분류됨. 우리나라 기준으로 HS 10단위 품목까지 살펴보면, 라면(HSK 1902.30.1010)이 포함되어 있음.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HS 1905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HS 1905.90은 HS 1905의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표 4-10〉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곡물조제(HS 19류) HS 6단위 품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부류	HS 6단위	2020년	부류	HS 6단위	2020년
-	곡물조제 수출액		287	곡물조제 수출액		219
1	그 밖의 파스타	1902.30	153	와플과 웨이퍼	1905.32	129
2	영유아·어린이 조제식료품	1901.10	63	스위트 비스킷	1905.31	61
3	기타 베이커리 제품	1905.90	31	그 밖의 파스타	1902.30	18
4	곡물 조제식료품	1904.10	17	기타 베이커리 제품	1905.90	5
5	스위트 비스킷	1905.31	8	기타 조제식료품	1901.90	4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2. 31.).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對미국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과실조제(HS 20류)가 겹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2.1배 큰 규모임.

〈표 4-11〉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對미국 농식품 수출 품목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부류	HS 2단위	2020년	부류	HS 2단위	2020년
-	농식품 수출액		1,149	농식품 수출액		1,849
1	곡물조제	19	316	동식물유	15	936
2	과실조제	20	191	커피·차	9	366
3	기타조제품	21	184	코코아	18	229
4	담배	24	165	과실조제	20	90
5	음료주류	22	126	당류설탕	17	55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9.).

○ 인도네시아 주요 농식품 수출 품목인 동식물유(HS 15류)²⁵⁾의 2020년 수출액은 207억 달러이며, 팜유와 그 분획물(HS 1511호)²⁶⁾과 야자유 등(HS 1513호)²⁷⁾이 대부분임.

- 2020년 인도네시아의 동식물유 수출액은 2016년 대비 13.7%, 전년 대비 17.5% 증가한 규모임.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동식물유(HS 15류)는 1501호부터 1522호로 이루어져 있음.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511호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의미함.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513호는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바바수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의미함.

- 동식물유의 주요 품목인 팜유와 그 분획물의 2020년 수출액은 2016년 대비 20.9%, 전년 대비 18.0% 증가한 174억 달러이고, 2020년 동식물유 수출액의 83.8%를 차지함.
 - * 인도네시아의 팜유와 그 분획물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음.
- 야자유 등의 2020년 수출액은 19억 달러로 2016년 대비 31.2%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동식물유 수출액의 9.1%를 차지함.
 - * 인도네시아의 야자유 등은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음.

〈표 4-12〉 인도네시아 동식물유(HS 15류) 수출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동식물유(15류)	18,232	22,966	20,346	17,635	20,721	13.7	17.5
팜유와 그 분획물 (1511호)	14,365 (78.8)	18,513 (80.6)	16,528 (81.2)	14,716 (83.4)	17,365 (83.8)	20.9	18.0
인도	3,439	4,895	3,560	2,247	2,985	-13.2	32.9
중국	1,642	2,069	2,086	2,643	2,492	51.8	-5.7
파키스탄	1,289	1,460	1,433	1,165	1,661	28.8	42.6
말레이시아	334	504	573	689	784	134.9	13.9
스페인	689	920	710	567	749	8.7	32.1
야자유 등 (1513호)	2,727 (15.0)	3,028 (13.2)	2,424 (11.9)	1,712 (9.7)	1,877 (9.1)	-31.2	9.7
중국	712	729	680	542	471	-33.8	-13.1
미국	459	590	312	216	268	-41.7	23.8
말레이시아	288	290	314	218	266	-7.6	21.9
네덜란드	422	457	334	197	183	-56.5	-6.8
브라질	205	212	149	121	165	-19.4	37.0
기타 ²⁾	1,140	1,425	1,394	1,207	1,479	29.7	22.5

주 1) ()는 동식물유 수출액에서 각호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1501~1522호 수출액은 동식물유 전체 수출액에서 1511호와 1513호를 제외한 수치임.

3) 비중 및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4.3. 농식품 수입 동향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액은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주요 수입 품목은 곡물(HS 10류), 조제사료(HS 23류), 당류설탕(HS 17류) 등임.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액은 2018년 194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액은 1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함.
 - 2020년 인도네시아의 곡물 수입액은 30억 달러로 2016년 대비 5.3%, 전년 대비 6.7% 감소함.
 - 곡물 다음으로 수입액이 큰 조제사료의 2020년 수입액은 29억 달러이며, 2016년 대비 17.4%, 전년 대비 9.9% 증가함.
 - 인도네시아 당류설탕의 수입액은 2019년 17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5% 증가함.

〈표 4-13〉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부류	HS 2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농식품		15,950	17,262	19,427	18,276	17,997	12.8	-1.5
곡물	10	3,192	2,927	3,795	3,237	3,022	-5.3	-6.7
조제사료	23	2,480	2,652	3,057	2,649	2,911	17.4	9.9
당류설탕	17	2,367	2,359	2,125	1,679	2,276	-3.9	35.5
종자대두	12	1,203	1,504	1,516	1,490	1,421	18.1	-4.6
과실견과	08	848	1,192	1,311	1,486	1,272	49.9	-14.4
낙농품	04	832	991	1,014	1,143	1,157	38.9	1.2
채소뿌리	07	696	821	738	770	846	21.6	9.9
기타조제품	21	666	732	901	825	819	22.8	-0.7
식용설육	02	580	591	725	850	711	22.6	-16.4
담배	24	541	704	794	690	664	22.7	-3.7
코코아	18	350	646	707	776	651	85.7	-16.1
곡물조제	19	315	353	404	487	478	51.7	-2.0
산동물	01	616	548	609	631	471	-23.6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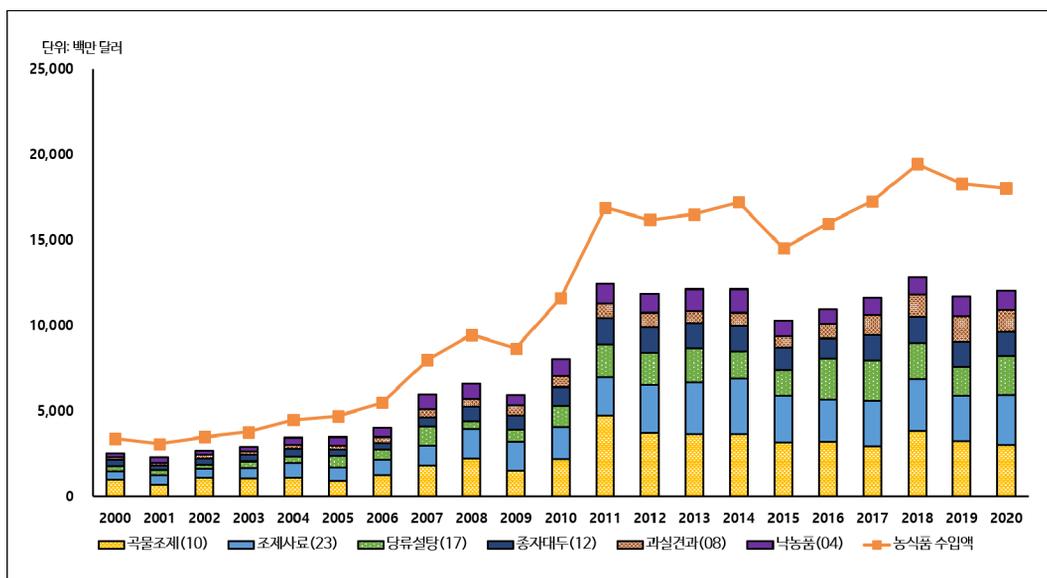
(계속)

부류	HS 2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맥아전분	11	399	276	452	418	286	-28.3	-31.6
커피·차	09	228	254	393	262	233	2.1	-11.1
동식물유	15	179	199	208	251	221	23.0	-12.0
과실조제	20	173	198	208	225	198	14.4	-12.0
동물사체	05	91	118	162	172	149	63.8	-13.3
음료주류	22	115	119	209	136	123	6.5	-9.8
식물수액	13	71	70	90	86	81	13.3	-5.7
식물인경	06	4	6	7	9	8	78.3	-14.2
기타식물	14	1	2	2	2	2	37.6	-27.9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그림 4-2〉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 동향(2000~2020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의 주요 대상 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며, 2020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27억 달러, 25억 달러 규모의 농식품을 수입함.

-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7년에 27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임.

-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5억 달러로 2016년 대비 43.8% 증가함.
- 인도네시아의 호주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7년 27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20년 호주산 농식품 수입액은 18억 달러임.
- 인도네시아의 브라질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9년 9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7% 증가함.
- 인도네시아의 아르헨티나산 농식품 수입액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17억 달러 내외 수준임.

〈표 4-14〉 인도네시아 농식품 주요 수입 국가(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1	미국	2,335	2,655	2,697	2,676	2,686	15.0	0.4
2	중국	1,708	2,159	2,414	2,523	2,455	43.8	-2.7
3	호주	2,587	2,710	2,289	1,822	1,768	-31.7	-2.9
4	브라질	1,414	1,210	1,013	930	1,708	20.8	83.7
5	아르헨티나	1,317	1,107	1,353	1,738	1,691	28.4	-2.7
6	태국	1,681	1,721	2,403	1,802	1,207	-28.2	-33.0
7	인도	503	626	909	780	1,001	99.0	28.2
8	캐나다	487	524	631	792	769	58.0	-2.8
9	우크라이나	510	429	604	730	732	43.6	0.2
10	뉴질랜드	465	496	508	515	558	20.1	8.2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 판단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입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함. 그 결과, 기타조제품(HS 21류), 담배(HS 24류), 종자대두(HS 12류), 당류설탕(HS 17류), 조제사료(HS 23류)가 우리나라 수출과 인도네시아 수입에서 중복되는 품목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기타조제품은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기타조제품 수출액의 3.9%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담배 수출액은 2020년 기준 11억 달러이고, 담배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담배 수출액의 1.5%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종자대두 수출액은 2020년 기준 6백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종자대두 수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당류설탕 수출액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이며, 수출액도 4백만 달러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조제사료 수출액은 2020년 3억 달러이고, 해당 품목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음료주류(HS 22류), 과일조제(HS 20류)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음료주류 수입 규모(1.2억 달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202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음료주류 수입액에서 우리나라가 10.9%를 차지하고 있음.
- 과일조제의 경우, 주로 중국,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과일조제 수입액은 3백만 달러 수준임.

〈표 4-15〉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부류	HS 2단위	2020년	부류	HS 2단위	2020년
-	농식품 수출액		7,318	농식품 수입액		17,997
1	곡물조제	19	1,410	곡물	10	3,022
2	기타조제품	21	1,246	조제사료	23	2,911
3	담배	24	1,042	당류설탕	17	2,276
4	음료주류	22	879	종자대두	12	1,421
5	과실조제	20	780	조제사료	08	1,272
6	종자대두	12	381	낙농품	04	1,157
7	당류설탕	17	331	당류설탕	07	846
8	조제사료	23	230	기타조제품	21	819
9	과실견과	08	205	식용설육	02	711
10	채소부리	07	205	담배	24	664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9.).

〈표 4-16〉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과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 품목 분석

단위: 백만 달러

우리나라 수출액			인도네시아 수입액		
부류	HS 2단위	2020년	부류	HS 2단위	2020년
기타조제품	21	1,246	기타조제품	21	819
인도네시아		49 (3.9)	우리나라		47 (5.8)
담배	24	1,042	담배	24	664
인도네시아		15 (1.5)	우리나라		15 (2.2)
종자대두	12	381	종자대두	12	1,421
인도네시아		6 (1.6)	우리나라		6 (0.4)
당류설탕	17	331	당류설탕	17	2,276
인도네시아		4 (1.2)	우리나라		4 (0.2)
조제사료	23	230	조제사료	23	2,911
인도네시아		28 (12.2)	우리나라		27 (0.9)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9.).

○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식품 수입 품목인 곡물(HS 10류)²⁸⁾ 수입액은 2016년 32억 달러에서 2020년 30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대부분 밀과 메슬린(HS 1001호)²⁹⁾으로 수입됨.

- 인도네시아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과 메슬린의 2020년 수입액은 26억 달러로 2016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6.5% 감소함.

*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밀과 메슬린을 수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우크라이나산 밀과 메슬린 수입액은 증가 추세이며, 2020년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7억 달러로, 2016년 대비 43.5%, 전년 대비 1.3% 증가함.

* 인도네시아의 아르헨티나산 밀과 메슬린 수입액은 2019년 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다음 2020년 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158.1% 증가함.

* 인도네시아의 호주산 밀과 메슬린 수입액은 2017년 11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20년 수입액은 2억 달러임.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곡물(HS 10류)은 1001호부터 1008호로 이루어져 있음.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001호는 밀과 메슬린(meslin)을 의미함.

- 밀과 메슬린 다음으로 주로 수입되는 옥수수(HS 1005호)³⁰와 쌀(HS 1006호)³¹의 수입액은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2020년 각 품목의 수입액은 각각 2억 달러, 1.7억 달러임.

〈표 4-17〉 인도네시아 곡물(HS 10류) 수입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곡물(10류)	3,192	2,927	3,795	3,237	3,022	-5.3	-6.7
밀과 메슬린 (1001호)	2,408 (75.4)	2,648 (90.5)	2,571 (67.7)	2,799 (86.5)	2,616 (86.6)	8.6	-6.5
우크라이나	493	410	578	699	708	43.5	1.3
캐나다	446	485	572	702	639	43.4	-8.9
아르헨티나	243	31	144	510	628	158.1	23.1
미국	231	277	236	343	342	48.0	-0.2
호주	852	1,171	640	260	240	-71.9	-7.7
쌀 (1006호)	532 (16.7)	144 (4.9)	1,037 (27.3)	184 (5.7)	195 (6.5)	-63.3	6.1
옥수수 (1005호)	231 (7.2)	114 (3.9)	160 (4.2)	213 (6.6)	173 (5.7)	-25.2	-18.8
기타 ²⁾	21	22	27	41	38	80.9	-8.3

주 1) ()는 곡물 수입액에서 각호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1001~1008호 수입액은 곡물 전체 수입액에서 1001호, 1005호, 1006호를 제외한 수치임.

3) 비중 및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

○ 곡물(HS 10류)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조제사료(HS 23류)³²이고, 인도네시아의 조제사료는 오일 케이크 등(HS 2304호)³³으로 주로 수입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조제사료 수입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 오일 케이크 등의 수입액은 19억 달러이며, 2016년 대비 23.2%, 전년 대비 16.8% 증가함.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005호는 옥수수를 의미함.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006호는 쌀을 의미함.

32)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조제사료(HS 23류)는 2301호부터 2309호로 이루어져 있음.

33)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2304호는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 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의미함.

- 오일 케이크 등은 2019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나, 수입선 전환 등의 이유로 2020년에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브라질산 오일 케이크 등의 수입은 2016년 5.3억 달러에서 2020년 9.4억 달러로 78.4% 증가하였고, 아르헨티나산 오일 케이크 등의 수입은 2016년 9.3억 달러에서 2020년 9.0억 달러로 3.8% 감소함.
- 오일 케이크 등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사료용 조제품(HS 2309호)³⁴⁾, 가루 및 수지박 등(HS 2301호)³⁵⁾, 전분박 등(HS 2303호)³⁶⁾임. 인도네시아의 사료용 조제품 수입은 2016년 5.3억 달러에서 2018년 3.3억 달러로 감소한 다음 3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가루 및 수지박 등의 수입은 2016년 1.1억 달러에서 2020년 3.3억 달러로 211.1% 증가하였으며, 전분박 등의 수입도 2016년 2.5억 달러에서 2020년 3.1억 달러로 22.0% 증가함.

〈표 4-18〉 인도네시아 조제사료(HS 23류) 수입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조제사료(23류)	2,480	2,652	3,057	2,649	2,911	17.4	9.9
오일 케이크 등 (2304호)	1,574 (63.5)	1,642 (61.9)	2,045 (66.9)	1,659 (62.6)	1,938 (66.6)	23.2	16.8
브라질	527	536	725	590	940	78.4	59.3
아르헨티나	934	1,016	1,105	1,024	898	-3.8	-12.3
미국	4	16	116	13	81	2,038.3	506.3
파라과이	57	35	86	25	13	-77.6	-49.4
인도	4	17	6	4	4	10.9	5.3

34)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을 의미함.

35)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2301호는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을 의미함.

36)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2303호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를 의미함.

(계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사료용 조제품 (2309호)	525 (21.2)	559 (21.1)	332 (10.8)	328 (12.4)	331 (11.4)	-37.0	0.8
가루 및 수지박 (2301호)	105 (4.3)	107 (4.0)	343 (11.2)	305 (11.5)	328 (11.3)	211.1	7.8
전분박 등 (2303호)	252 (10.2)	333 (12.6)	317 (10.4)	338 (12.8)	307 (10.6)	22.0	-9.1
기타 ²⁾	24	11	21	20	6	-72.9	-68.1

주 1) ()는 조제사료 수입액에서 각호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2301~2309호 수입액은 조제사료 전체 수입액에서 2304호, 2301호, 2303호, 2309호를 제외한 수치임.

3) 비중 및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

○ 인도네시아 당류설탕(HS 17류)³⁷⁾의 2020년 수입액은 23억 달러이고, 대부분 사탕수수당 등(HS 1701호)³⁸⁾으로 수입됨.

-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당류설탕 수입의 85.1%를 차지하고 있는 사탕수수당 등의 2020년 수입액은 19억 달러이며, 2020년 기준 태국, 브라질,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사탕수수당 등의 수입은 2019년까지 대부분 태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2020년 브라질,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선이 확대됨.
- 인도네시아의 태국산 사탕수수당 등의 수입액은 2018년 1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 7억 달러로 감소함. 인도네시아의 브라질산 사탕수수당 등의 수입은 2019년 중단되었으나, 2020년 5억 달러로 수입이 재개되었으며, 호주산의 수입도 2019년 1.9억 달러로 감소한 다음, 2020년 4.3억 달러로 126.3% 증가함.
-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 인도산과 남아프리카산 사탕수수당 등을 거의 수입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각각 2.3억 달러, 3천만 달러의 사탕수수당 등을 수입함.

37)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당류설탕(HS 17류)은 1701호부터 1704호로 이루어져 있음.

38)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701호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의미함.

〈표 4-19〉 인도네시아 당류설탕(HS 17류) 수입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당류설탕(17류)	2,367	2,359	2,125	1,679	2,276	-3.9	35.5
사탕수수당 등 (1701호)	2,090 (88.3)	2,072 (87.8)	1,800 (84.7)	1,366 (81.3)	1,936 (85.1)	-7.4	41.7
태국	916	1,143	1,454	1,171	710	-22.5	-39.4
브라질	661	471	25	-	524	-20.8	-
호주	393	293	315	190	429	9.2	126.3
인도	0	-	-	0	229	967,231.3	110,086.7
남아프리카	-	-	-	-	26	-	-
그 밖의 당류 등 (1702호 ³⁹⁾)	214 (9.0)	215 (9.1)	250 (11.8)	233 (13.9)	262 (11.5)	22.4	12.5
설탕과자 (1704호 ⁴⁰⁾)	14 (0.6)	14 (0.6)	16 (0.8)	17 (1.0)	18 (0.8)	35.6	9.9
당밀 (1703호 ⁴¹⁾)	50 (2.1)	58 (2.5)	59 (2.8)	64 (3.8)	60 (2.6)	20.3	-6.2

주 1) ()는 당류설탕 수입액에서 각호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비중 및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1. 2.).

39)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702호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의미함.

40)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704호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의미함.

41)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1703호는 당밀[당류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을 의미함.

5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⁴²⁾

5.1. 농업정책 동향

- 지난 30년 동안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의 우선순위는 식품 자급자족, 식품 다양성 향상, 농업 부가가치 증대, 농업 경쟁력 향상, 농민 복지 향상에 있었음. 이 중 식량 주권을 위한 식량 자급이 최우선 순위의 목표임. 이에 따라 주요 품목인 쌀, 옥수수, 대두, 설탕, 쇠고기를 대상으로 한 생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 생산자 지원을 위한 시장 가격 개입, 투입재 보조, 농업 기반시설 투자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투입재 보조 정책에는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와 종자 보조와 신용 제공이 포함되며, 농업생산자 관련 지원은 2000년대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됨.
- 인도네시아의 농업생산자 보조(Producer Support Estimate: PSE)⁴³⁾는 1998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항상 양(+)⁴³⁾의 값을 보임. 생산자 보조는 주로 가격

42) 김종선 외(2020), OECD(2021), WTO(2020), 번역 위탁원고(rencana strategis kementerian pertanian 2015~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43) OECD는 1987년 이후 회원국들의 시장지향적 농정개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보호 및 농업생산자지원 수준을 측정하는 PSE 지표를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음.

개입의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수단으로는 관세와 최저 보장가격이 활용됨. 팜유(CPO)와 파생제품, 코코아에 대한 수출세는 해당 품목에 음(-)의 보조 효과가 있으며, 수입 관세는 해당 품목에 양(+의 보조 효과가 있음. 투입재 보조와 소비자 보조 정책의 효과는 가격지지 정책에 비해 효과가 작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특히, 쌀) 보조 정책인 Raskin이 1998년 도입되었는데, 이는 쌀의 최저보장 가격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었음. Raskin은 이후 Rastra로 대체되었고 2017년에는 BPNT(Bantuan Pangan Non Tunai)으로 대체됨. BPNT의 도입으로 이전의 현물 배급이 전자 바우처로 전환되었음. 연속되는 식품 보조정책은 가구당 쌀 10kg을 보급하는 제도임.
- 인도네시아 경제는 1980년대까지 국제 교역에 적극적이지 않아 비교적 폐쇄적인 환경이었음. 국제 교역이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 WTO와 ASEAN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됨.
 - 농업 생산물에 대한 관세는 1990년에 20%대에서 2010년 5%대까지 인하됨. 1997~1998년에는 수입 독점이 폐지되었고 수입면허와 수출 규제가 폐지되었음.
 - 다만 쌀, 설탕, 쇠고기 등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물량 규제가 도입됨.

〈표 5-1〉 인도네시아의 농업정책 동향

구분	정책 환경	농업 정책의 변화
1960~1980년대	폐쇄 경제 사회 불안을 피하기 위한 생산 확대 유가 상승 녹색 혁명	· 식품물류청(BULOG) 설립(1967년)과 마케팅 기능 확대 · 비료, 농약 등 투입재 보조 및 농업 신용 제공 · 농업 기반시설 대규모 투자 · 수입 관세율 증가 · 수출 및 수입의 양적 통제 · 팜유 및 파생제품에 대한 수출세
1980~1996년	무역 자유화	· 관세 폐지 및 일반 관세 감면 프로그램 실시 · 무역 협정(URAA, AFTA, APEC) · 1994년 팜유 및 파생제품 수출세에 관한 새로운 법안 · 투입재 보조 단계별 폐지
1997~1999년	시장 개혁 아시아 금융 위기	· BULOG의 독점권 축소(특히 쌀) · 비료 보조금 축소 · 쌀 분산 프로그램 도입(OPK/Raskin) · 설탕 수입면허를 관세로 대체 · 유제품과 대두에 대한 지역별 함량 조건 폐지 · 팜유 및 파생제품에 대한 수출세 일시 중지
2000~2012년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여 농업 부문 활성화 대책	· 비료 보조금 복원 · 교육/지도, R&D, 관개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 쌀과 설탕 관세 인상 · 쌀, 설탕, 쇠고기의 수입 양적 규제 도입 · 비관세 조치 확대 적용 · 팜유와 파생제품, 코코아에 대한 변동 수출세
2012년~현재	2012 식품법 (식량 자족, 식량 주권)	· 쌀 국내시장과 수입에서 BULOG의 역할 확대 · 저소득층 지원정책(Raskin-Rastra-BPNT) · 비료와 종자, 신용 제공의 투입재 보조규모 확대 · 농기계 지원 · 국가 식량농장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자료: OECD(202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ing Food Systems." OECD Publishing, Paris.

○ 수입 농산물에 대한 동식물 검역 조건과 종교·문화적 조건(예, 할랄 인증)은 강력한 수입장벽으로 존재함. 때때로 이러한 규제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수입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함.

○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음. 팜유(crude palm oil: CPO)와 파생제품에 대한 수출세는 1994년에 도입되었고, 2010년에는 코코아에 도입됨.

5.1.1. 쌀 관련 농업정책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쌀 자급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쌀 증산에 노력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쌀 자급률은 1984년 이후 10여 년간 달성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식량 자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1969년부터 쌀 생산과 환경에 대한 정부 정책의 노력은 <표 5-2>에 나타나 있음.
- 1969~1974년 기간(통합 시기)은 농업 기반시설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임. 저수지 개발, 관개시설 복원 및 구축, 쌀 집중화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책이 시행됨.
- 1974~1987년 기간(고속성장 시기)에는 관개시설 등의 농업기반 투자가 지속되었고, 쌀 생산 증대를 위한 특별 집중화 프로그램(INSUS), 저지대 농업 확장, 영농서비스 개발, 보호관세, 최저·최고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어 시행됨. 이 시기에 쌀 자급률 향상, 빈곤 완화 등에 큰 진전이 있었음.
- 1987~1997년 기간(성장 침체기)에는 산업지원을 위한 무역 자유화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농업부문에서는 예산 감소로 인하여 농업 투자와 지원이 감소함. 해충방제 지원 폐지, 최저·최고 가격 상한제 폐지 등의 변화가 있었음. 반면, 연구 및 영농지원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함. 이 기간에 쌀 수입은 증가하였고, 농가 소득이 정체됨.
- 1997~2001년(경제위기 시기) 기간에는 투입재 보조 폐지와 경제위기로 인한 높은 은행 이자율로 인해 전반적인 농업 경영이 악화됨. 결과적으로 농민의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자급률 하락, 농가 빈곤 증대의 문제점이 노출됨.
- 2001년 이후 지방자치로 인한 분권화가 진행되었으나, 중앙정부는 지역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투입재 개발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표 5-2〉 인도네시아 쌀 경작 체계 관련 정부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	기술	영향
통합시기 (1969~1974년)	- 저수지 개발 - 쌀 집중화 프로그램 소개 - 관개시설 복원 및 구축	MV: IR5, IR8, IR36 무기질 비료: Urea, TSP, KC1	- 식량안보 및 빈곤 감소에 긍정적 인 영향
고속성장시기 (1974~1987년)	- 특별 집중화 프로그램(INSUS) - 관개시설 저지대 농업 확장 - 영농서비스 개발 - 보호 관세 - 최저·최고 가격 상한제	MV: IR42, IR64, Cisadane 급격한 비료 사용 증대	- 쌀 자급률 달성 - 큰 폭의 빈곤 완화 - 해로운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토지 및 수질 오염
성장침체기 (1987~1997년)	-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 감소 - 산업 지원을 위한 자유화 정책 - 해충제 지원 보조금 폐지 - 연구&영농지원 개발 - 최저·최고 가격 상한제 폐지	MV: IR66, IR68, IR70, IR72, IR74, Memberamo, Cibodas, Ciliwung, Way, Seputih, Dodokan 정체된 비료 사용 PHT 실행	- 쌀 수입 현상 가속화 - 더딘 농민 소득 증대 - 해로운 화학제품으로 인한 토질 및 수질 오염 증가
경제위기시기 (1997~2001년)	- 비료 보조금 폐지 - 높은 은행 이자율 - 지역 연구개발 기관 설립 - 정부 조달 가격 및 관세 제도 재제정	MV: Ciharang, Way Apo Buru, Sintanur Urea tablets 비료 사용 기술	- 식량안보 위협 증대 - 식량안보 위기 및 빈곤 증가 - 토질 및 수질 오염 감소 - 농민의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도 증대
지방분권화 (2001년~현재)	-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의 권한 이전 - 지역 연구개발 기관 설립 - 지속적인 정부 조달 가격 정책	MV: Mekongga, Inpari, Inpara, Inapgo, Hibrida, Padi ICM 유기질 비료	- 초인플레이션 - 농업분야에 대한 지역 정부의 지 원 증대 -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술 개발 - 투입재 사용 효율성 증대 및 쌀 가 격 안정성 확대

주: TSP는 중과린산석회(Triple Super Phosphate), ICM은 통합 작물 관리 제도를 의미함.

자료: 김종선·최정만(2020).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 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인도네시아』.

5.2. 식품법(Law 18/2012 Concerning Food) 이후 농업 정책

○ 인도네시아의 농업 정책은 식품법(Food Law, 2012)에 기초하여 식량자립과 식량주권을 목표로 함. 식품법은 농업부 전략 계획 2020~24(the Strategic Pla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2020~24)에 반영되었으며, 전략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식량작물(쌀, 옥수수, 대두, 설탕, 쇠고기)의 생산을 통한 식량안보 달성
- 식량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보장
- 탄수화물에서 축산물과 과일·채소로의 식품의 다양화
- 농업 생산성 향상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

- 바이오산업과 바이오 에너지 부문의 천연자원 활용 증대
 - 빈곤 해소와 소득 증대를 통한 농민의 복지 향상
- 목표 실현을 위한 쌀과 설탕에 대한 최저 보장가격 수매, 농업 투입재 보조를 위한 재정 마련, 관개, 연구·개발, 유통·홍보를 통한 농업 지원정책이 시행됨.
- 쌀과 관련된 정책에는 식품물류청(BULOG)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BULOG의 기능은 유통, 가격 안정, 재고 관리 등이 있음.
- 쌀 가격이 최저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BULOG는 시장에 개입하여 농가로부터 직접 수매를 실시함.
 -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량의 2.5%에 해당하는 200만 톤의 재고를 유지함.
 - 특정 품종의 쌀(jasmine rice, basmati rice 등)은 민간업체에서도 수입 가능하지만, 중급 품질의 쌀 수입은 BULOG에게 독점권이 있음.
 - 2017년에 소매단계의 중급과 고급 쌀에 대한 최고 가격제한 정책이 실시됨. 쌀 시장 가격이 최고 가격을 초과하면 BULOG는 재고를 방출함.
 - 쌀 수입에서 BULOG가 차지하는 비중⁴⁴⁾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이 큼.
 - BULOG의 쌀 수매량은 인도네시아 쌀 생산량 중 9.3%(2012년), 5.9%(2014년), 6.5%(2016년), 4.6%(2017년)를 차지함.
- 2019년에 식량보조 프로그램이 기존의 Rastra에서 BPNT(Bantuan Pangan Non Tunai)로 전환됨.
- BPNT는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의 공동 프로그램임.
 - 수급 자격을 갖춘 가정에 월 150,000루피아(10.3달러)의 식량 구입카드를 지원함.

⁴⁴⁾ 쌀 수입에서 BULOG가 차지하는 비중: 69.4%(2012년), 50.3%(2014년), 52.7%(2016년), 0%(2017년)

- 농업 투입재 지원은 비료, 종자, 농민금융 지원을 포함함.
 - 비료의 종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른데, 요소비료의 경우 시장가격의 최고 67.2%를 지원함. 지원은 비료 생산자에게 지급되며 비료 생산자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함.
 - 종자와 비료 보조 예산은 2013년 20.270조 루피아에서 2018년 37.721조 루피아로 증가하는 등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농업부는 파종시기 이전에 지역별, 종류별 비료 필요량 추정치와 비료 기준가격을 발표함.
 - 농업부 발표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비료 생산자는 지역별 분배 계획을 세움.

-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가 주관하는 관개시설 투자는 농업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인도네시아 쌀 경작지의 84%에 관개시설 설치가 완료됨.
 - 2015년 이후 연료 보조금 감축으로 확보한 재정을 활용하여 쌀 경작지에 대한 관개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함.
 - 2017년 관개시설 투자 규모는 33.26조 루피아로 2016년 28.29조 루피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식량 자급을 위하여 쌀, 옥수수, 대두, 설탕, 쇠고기 등의 전략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 주요 식량 작물의 수출과 수입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함.
 - 식량 비축량과 소비량을 충족해야만 식품 수출이 가능함.
 - 국내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생산이 되지 않아야만 식량 수입이 가능함.

- 농산물 수입 관세는 알코올음료나 주정을 제외한 농식품에는 MFN(Most Favoured Nation) 관세가 적용됨. 다만, 쌀과 설탕에 부과되는 관세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
 - 농산물에 대한 수입량 제한과 수입 면허 제도가 시행되며, 품목은 쌀, 설탕, 쇠고기 등임.
 - 식품 안전성과 종교적·문화적 조건(예, 할랄 인증)을 충족하는 농식품에 대해 수입이

허용되며, 수입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MFN 관세는 5년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갱신하고 있음. 마지막 관세 갱신은 2017년에 있었음.
- 2008년 이후 육류, 곡류, 설탕, 코코아 가공식품 수입업체는 무역부(Ministry of Trade)의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함. 가축류의 수입업체도 유사한 정책이 2011년 이후 시행 중임.
- 2011년 발표된 가축과 축산물의 교역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the Ministry of Trade regulation on the Import and Export of Animals and Animals Products)에 따르면, 국내 생산과 공급이 부족하여 적정가격을 상회할 경우에 한해 수입이 이루어짐.

○ 팜유 등의 대농장 생산물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여 국내 가공을 장려하고 있음.

- 팜유(Crude Palm Oil: CPO)와 파생제품, 코코아에 대한 수출세를 도입함. 수출세에 관한 내용은 무역부 장관령(MoT regulations 67/2010, 136/2015)에 규정됨.
- 팜유에 대한 수출세는 종가세를 따르며, 가격이 톤당 750달러를 하회하면 수출세가 면제됨. 이 가격을 상회하면 가격에 따라 톤당 3~200달러의 수출세가 부과됨.
- 2015년 이후 팜유에 대해 추가 수출세는 톤당 55달러로 해당 자금은 팜유 펀드 관리 위원회(the Palm Oil Fund management board)가 관리를 담당함. 바이오디젤 보조금, 기반 시설, 팜유 관련 연구·개발, 시장 홍보, 인적자원 육성 등에 자금이 사용됨.

5.3. 농업 생산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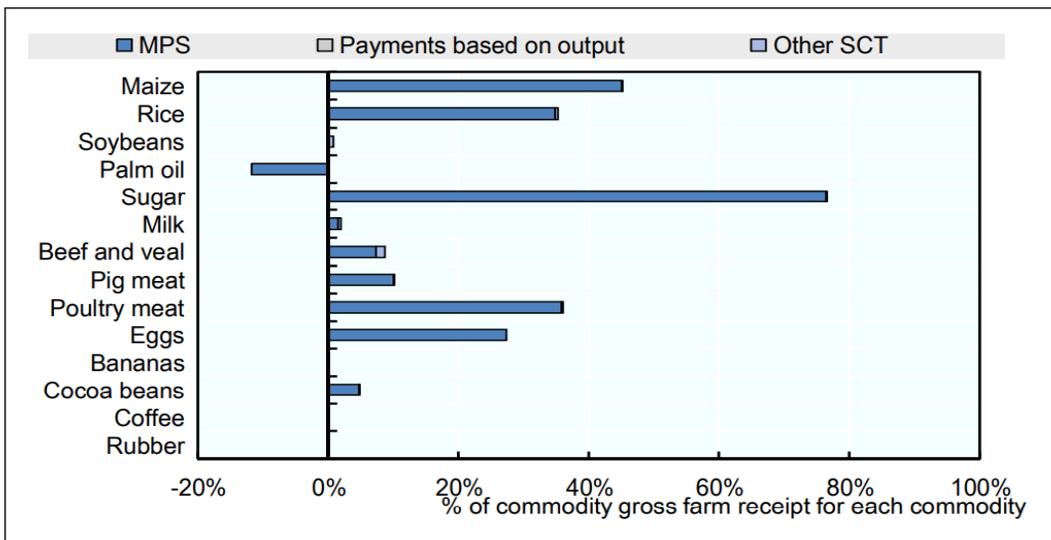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농업 생산자 지원은 2000년대에 큰 폭으로 확대됨. 농가 수취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2002년 7.5%에서 2010년 21.3%로 증가한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2018~2020년에는 21.1%를 기록함. 생산자 지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은 시장가격 보조임.

○ 가격 보조의 영향으로 농가수취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평균 25% 높은 수준임. 보조 비율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요 품목(설탕, 옥수수, 가금육류, 쌀, 계란)의 보조 비율은

타 품목에 비해 높은 수준임. 팜유의 경우 수출세 징수로 음(-)의 가격 보조가 이루어짐.

- 인도네시아는 저소득층 소비자를 위하여 전자 바우처 형태의 식량보조 프로그램(BPNT)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지원 규모가 가격 보조에 비해 작아 소비자는 농업정책으로 손실을 보고 있음. 가격 보조와 소비자 보조를 함께 고려하면 소비자는 지출(농가 판매가격으로 측정)의 26.7%의 음(-)의 보조를 받는 것으로 계측됨.

〈그림 5-1〉 품목별 정부 정책지원 규모



주 1) MPS(market price supports).

2) Maize(옥수수), Rice(쌀), Soybeans(대두), Palm oil(팜유), Sugar(설탕), Milk(우유), Beef and veal(쇠고기), Pig meat(돼지고기), Eggs(계란), Bananas(바나나), Cocoa beans(코코아), Coffee(커피), Rubber(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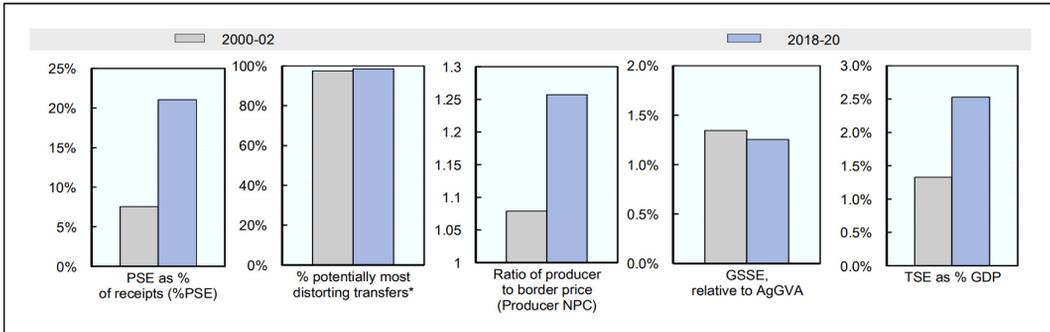
자료: OECD(202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ing Food Systems." OECD Publishing, Paris.

- 농업 일반 서비스 지출(GSSE)은 주로 기반시설과 공공 비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농업 총 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생산자 보조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음.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⁴⁵⁾

45) GSSE는 개별생산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검역·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농업 총 보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년간 1.3%에서 2.5%로 증가하였는데, 증가분의 대부분은 생산자 보조(PSE)의 증가임.

〈그림 5-2〉 인도네시아 농업 보조** 동향



주 1) *는 총 생산자 이전 중 시장왜곡 이전 비율을 의미함.

2) ** 농업보조(Total Support Estimate: TSE)는 정부정책(정책의 목적과 효과를 불문하고)으로 인한 농업으로 이전(지원)된 예산액을 의미함. TSE는 생산자 보조(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소비자 보조(Consumer Support Estimate: CSE), 일반서비스보조(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로 구분됨.

자료: OECD(202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ing Food Systems." OECD Publishing, Paris.

5.4.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식량생산이 부족한 국가로 쌀을 위주로 한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농업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가격 개입, 투입재 보조, 기반시설 투자, 수입제한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식량작물이 부족한 반면, 플랜테이션 부분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이고 특히, 팜유의 경우 생산량, 수출량 1위의 국가임. 이에 따라 팜유, 코코아 등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여 국내 가공을 유도하여 농업 부가가치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 식량작물의 자급을 위한 정책지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농업 생산성이 여전히 국제 수준에 이르지 못함. 식량 증산기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환경으로 판단됨. 넓은 영토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농업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지만, 식량 자급이 달성되기까지는 잠재력 발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한·인도네시아 FTA와 농식품 교역

6.1.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ASEAN FTA를 통해서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 18일 한·인니 CEPA가 정식 서명됨.

6.1.1. 한·인도네시아 FTA 주요 내용⁴⁶⁾

-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한·ASEAN FTA의 논의는 2003년 10월 8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한·ASEAN FTA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가 2004년 3~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해당 회의를 통해 민감품목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음.
 -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ASEAN FTA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2년 안에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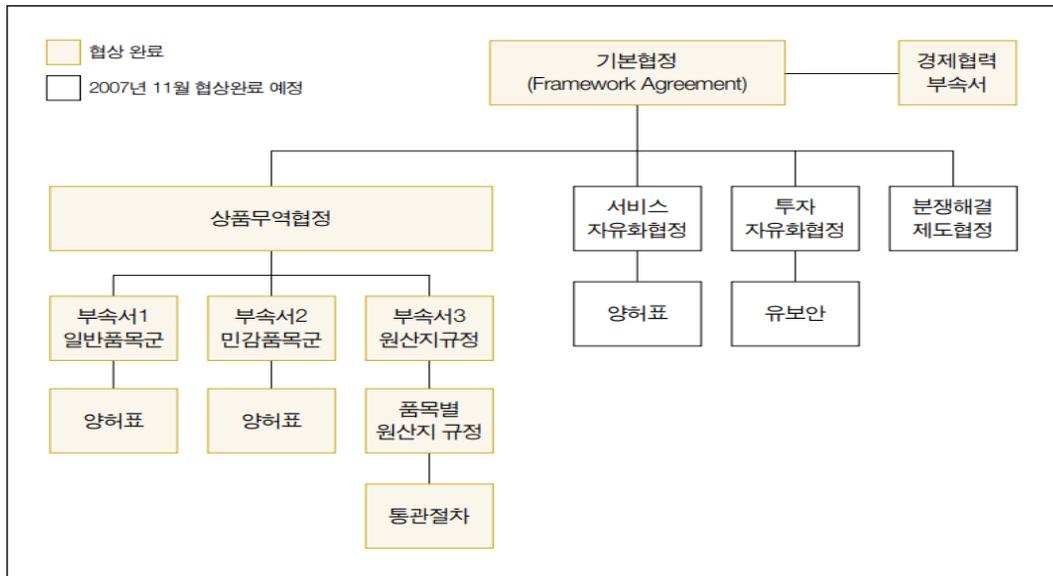
⁴⁶⁾ 한·ASEAN FTA 내용은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한·ASEAN FTA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05년 2월에 개최한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13차례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 8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함.

○ 한·ASEAN FTA는 한국과 ASEAN 10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측면에서 양자 간 협정인 동시에 복수국 간 협정의 성격을 가짐.

- 한·ASEAN FTA는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와 다르게 단일협상방식이 아닌, 기본협정문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투자협정을 순차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음.

〈그림 6-1〉 한·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상품무역협정』.

○ 상품협정의 경우 본문과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원산지규정에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품목군 및 민감품목군에 대한 양허표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각각의 부속서에 추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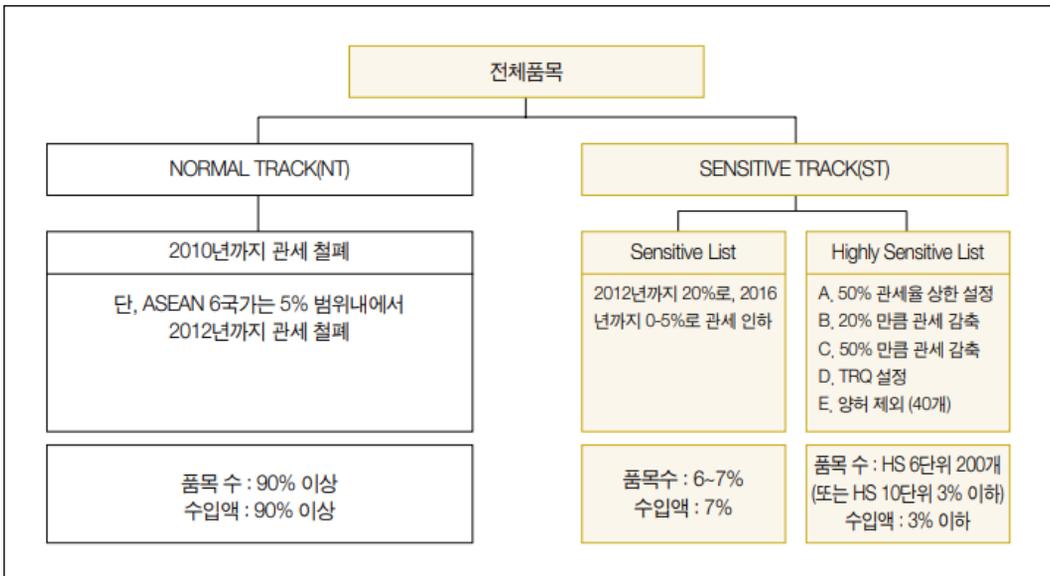
- 일반품목군의 경우 각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유연한 관세 철폐 스케

줄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품목군의 경우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됨.

○ 농업부문의 주요 이슈인 관세 인하 및 철폐⁴⁷⁾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품목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됨.

- 일반품목군은 전체 관세 품목의 90% 이상이고, 상대국으로부터의 2004년도 총수입액의 90% 이상이 되어야 분류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함.
- 민감품목군은 전체 관세 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상대국으로의 총수입액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인도네시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⁴⁸⁾

〈그림 6-2〉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자료: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상품무역협정』.

○ 한국과 ASEAN 선발 6개국의 일반품목군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를 완료하기로

47) 관세 인하 및 철폐 스케줄은 ASEAN 선발 6개국과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수행함에 따라, ASEAN 선발 6개국과 관련된 내용만 제시함.

48) 민감품목의 경우, 국가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ASEAN 선발 6개국(인도네시아 포함)과 민감품목군 설정 기준이 다름.

협의를 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품목의 최소 50%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⁴⁹⁾ 다만,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이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품목에 한해서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 철폐의 융통성을 보장함.

〈그림 6-3〉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약속: 한국 및 ASEAN 선발 6개국

국가	발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	일반품목군 7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		일반품목군 95% 품목의 관세 철폐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완료		
ASEAN 6		일반품목군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		일반품목군의 최소 90% 품목의 관세 철폐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이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 나머지 일반품목군의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완료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완료

주: 실행은 표기된 연도의 1월 1일까지 이행되어야 함.

자료: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상품무역협정』.

○ 민감품목군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되고,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① HS 6단위 200개 품목 혹은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에서는 모든 관세품목의 3%, ② 2004년 무역통계 기준으로 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3% 이내에 해당할 경우임.

- 일반민감품목은 해당 상품의 관세를 20% 이하로 인하하고, 최종 합의된 기한 내에 0~5%로 인하되어야 함.
- 초민감품목은 그룹 A~E까지 5개 그룹으로 구분되고, 그룹 A는 관세율 50% 상한,

49) 2007년 1월 1일까지 한·ASEAN FTA 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협정이 발효됨과 동시에 관세 인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함.

그룹 B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20% 인하, 그룹 C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50% 인하, 그룹 D는 관세할당 부과, 그룹 E는 양허 제외를 의미함.

- 한·ASEAN FTA 상품협정에 따른 각 국가는 HS 6단위로 최대 40개의 품목을 그룹 E로 분류가 가능함.
- 그룹 A~C에 속한 품목의 경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각 그룹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관세를 적용해야 함.

〈표 6-1〉 민감품목군 분류 상한선 및 일반민감품목의 관세 인하 일정

구분	민감품목군 상한선	초민감품목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모든 관세품목의 10%, 총수입액의 10%	HS 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그리고 총수입액의 3%
	20%로 인하	0~5% 인하
	2012년 1월 1일	2016년 1월 1일

자료: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상품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2005). 『한·ASEAN 상품협정서 부속서 2』.

○ 한·ASEAN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상품양허안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일반품목군으로 429개 품목이 개방되었으며, 민감품목군으로 250개의 품목이 분류됨.

-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250개의 품목 가운데, 79개의 품목이 일반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고, 171개 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됨.
- 우리나라의 초민감품목 중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일부), 마늘, 고추, 양파, 파, 인애플, 녹차 등은 양허 제외로 분류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감품목으로 464개 품목이 분류되었으며, 초민감품목은 156개, 초민감품목 중 40개 품목은 양허 제외됨.

〈표 6-2〉 한·ASEAN FTA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양허안

품목		기준관세 (%)	양허유형	연도별 협정관세율(%)		
				2007년	2010년	2016년 이후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	HSL E	E	E	E
보리	○ 겉보리	324	HSL C	324	324	162
	○ 쌀보리	299.7	HSL C	299.7	299.7	149.9
	○ 맥아	269	HSL C	269	269	134.5
	○ 맥주맥	513	HSL C	513	513	256.5
옥수수	○ 팝콘용 옥수수	630	HSL C	630	630	315
	○ 종자용 옥수수	328	NT	0	0	0
감자	○ 냉동, 건조, 기타 감자	27/20	NT 2010	13	0	0
	○ 종자용 감자	304	HSL B	304	304	243.2
	○ 감자 전분	455	HSL B	455	455	364
꿀	○ 천연꿀	243	HSL B	243	243	194.4
	○ 인조꿀	243	HSL B	243	243	194.4
감귤류 오렌지	○ 온주감귤	144	HSL E	E	E	E
	○ 만다린, 탄제린	144	HSL E	E	E	E
	○ 오렌지	50	HSL A	50	50	50
사과	○ 사과	45	HSL A/B/E	45	45	45/36/22.5
배	○ 배	45	HSL A/B	45	45	45/36
포도	○ 포도	45	HSL B	45	45	36
딸기	○ 딸기(신선, 냉동)	45/30	SL	45/30	45/30	5/5
고추	○ 신선냉장, 건조 고추	270	HSL E	E	E	E
	○ 냉동고추	27	HSL E	E	E	E
마늘	○ 신선, 일시저장, 건조 마늘	360	HSL E	E	E	E
	○ 냉동마늘	27	HSL E	E	E	E
양파	○ 신선, 냉장, 건조 양파	135	HSL E	E	E	E
	○ 냉동 양파	27	SL	27	27	5

자료: 대한민국 정부(2005). 『한·ASEAN FTA 협정문』 및 지성태 외(2016). 『농업부문 한·아세안 FTA 이행 실태와 시사점』을 참고하여 재정리.

6.1.2. 한·인니 CEPA 주요 내용⁵⁰⁾

- 2012년 3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인니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함. 이후 2019년까지 10차례의 협상을 통해 2019년 11월 한·인니 CEPA가 최종 타결되었으며, 2020년 12월 18일 한·인니 CEPA가 정식 서명됨.
- 한·인니 CEPA 상품 양허는 기 체결 중인 한·ASEAN FTA를 기초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ASEAN FTA상 관세 철폐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과 민감·초민감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이 추진되었음.
 -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품목과 한·ASEAN FTA 민감품목을 위주로 추가 개방하는 것으로 협상함.
 - 한·ASEAN FTA 유관세 품목 537개 가운데 146개 품목(상호주의 적용품목 4개, 민감품목 99개, 초민감품목 43개)에 대하여 관세 철폐(144개) 또는 관세 인하(10년 내 25% 감축, 2개)하는 것으로 추가 개방하였고, 그 외 391개 품목은 기준세율 유지(36개) 또는 양허제외(355개)하는 것으로 협의함.

〈표 6-3〉 한·인니 CEPA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식량작물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은 한·ASEAN FTA와 동일하게 양허제외	고구마, 대두, 팥 등은 기준세율 동결 또는 양허제외
과실류	사과, 배 등 국내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양허제외	플랜틴, 살라카 15년 철폐, 두리안·파파야·구아바·망고스틴 10년 철폐 등 국내 생산이 없거나, 수입액이 없는 기타 열대과일도 대부분 장기 철폐
채소·특작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및 인삼, 버섯 등 채소·특작류 대부분 양허제외	호박, 스위트콘 5년 철폐, 기타채소는 10년 내 현재 세율 대비 25% 관세 감축
가공식품	김치, 혼합조미료는 양허제외	춘장·고추장 5년 철폐, 간장 7년 철폐, 된장 15년 철폐, 맥주·위스키·보드카 등 주류는 대부분 5년 철폐
축산물/낙농품	대부분의 품목 양허제외	육류가공품(핫도그) 10년 철폐, 유장(사료용) 15년 철폐, 기타축산조제품·육즙 20년 철폐 등 개방된 품목도 대부분 장기 철폐로 협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

50) 관계부처 합동(2020)에서 제공하는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인 교류 협력까지 포함하는 협정임.

- 인도네시아는 한·인니 CEPA를 통해 355개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여, 인도네시아 농산물 1,1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수출 관심품목인 사과·배·감은 즉시철폐, 딸기 3년 철폐, 커피음료는 10년 철폐하기로 협의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쌀, 곡류가공품, 당류, 주류, 화초류 등 185개 품목에 대하여 양허 제외하기로 협의함.

〈표 6-4〉 한·인니 CEPA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우리나라		양허 단계	인도네시아	
주요 품목	품목 수		주요 품목	품목 수
곡류가공품, 유아용조제식료품, 원당, 원당, 기타식물성유지, 발효유	5	즉시 철폐	기타식물성유지, 견과류, 음료베이스, 과일 주스, 소, 땅콩, 밤, 기타채소, 감자, 빵, 면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초콜릿, 꿀, 기타식물성유지, 들기름, 참기름, 들깨, 참깨, 곡분, 감, 사과, 버찌, 밤, 딸기, 배, 포도, 바나나, 고구마, 타피오카, 난류, 치즈, 버터, 기타농산물, 발효유, 우유 등	276
기타농산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 기타식물성유지, 곡분, 골분, 치즈, 발효유	10	3년 철폐	딸기	1
주류, 과일주스, 기타농산가공품, 고추장, 춘장, 스위트콘, 비스킷, 곡류조제품, 면류, 유아용조제식료품, 당류, 대두유, 기타식물성유지, 토란, 암, 호박 등	45	5년 철폐	소스류, 곡류가공품	2
간장	1	7년 철폐	간장, 면류, 곡분, 레몬, 라임, 오렌지, 구아바, 파인애플 등	15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농산가공품, 과일주스, 단일과실조제품, 맥아엑스, 육류가공품, 두리안, 파파야, 레몬, 망고스틴, 구아바, 캐슈넛, 칩부리, 두류 등	46	10년 철폐	땅콩, 기타곡분, 사료, 생강, 고추, 녹차, 기타과실, 타피오카, 안, 강낭콩, 팥, 버섯, 양파, 양배추, 우유,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37
기타사료용조제품, 보조사료, 혼합조제식료품, 된장, 버찌, 밀전분, 플랜틴, 유장, 살라카 등	20	15년 철폐	생강, 고추, 녹차, 마늘, 천연꿀, 우유, 쇠고기	19
사료, 인삼음료, 기타농산물, 과일주스, 크랜베리, 살구, 밤, 육즙, 기타과실 등	16	20년 철폐	오렌지, 고추, 망고, 소, 곡분 등	5
기타농산가공품, 기타채소	2	관세 감축		-
	146	합계		35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

6.2.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⁵¹⁾

○ 한·인도네시아 간 농식품 교역액은 한국의 전체 농식품 교역액의 평균 3.5% 수준이며,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은 2018년 16억 달러까지 증가한 다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2020년 농식품 교역액은 2016년 대비 10.1% 증가하였지만, 전년과 비교할 때 3.1% 감소한 규모임.
-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은 대부분 한국이 인도네시아산 농식품을 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임.
- 부류별로 살펴보면,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의 주요 부류는 임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에서 해당 부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평균 49.9%, 40.6%임.

〈표 6-5〉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교역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對세계 농식품 교역액	36,422	39,066	42,249	41,334	41,849	14.9	1.2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	1,241 (3.4)	1,363 (3.5)	1,589 (3.8)	1,410 (3.4)	1,366 (3.3)	10.1	-3.1
수출액	152 (12.2)	176 (12.9)	205 (12.9)	170 (12.0)	179 (13.1)	18.0	5.5
수입액	1,089 (87.8)	1,187 (87.1)	1,384 (87.1)	1,241 (88.0)	1,187 (86.9)	9.0	-4.3

주 1) 농식품 교역액에서 ()는 세계 농식품 교역액에서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는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3) 비중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51)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의 살펴보기 위해 농축산물 2,925개 HSK 코드별 교역 자료를 집계하여 활용함.

〈표 6-6〉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부류별 교역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농식품	1,241	1,363	1,589	1,410	1,366	10.1	-3.1
곡류	105	93	109	97	103	-1.9	6.6
과일·채소	16	18	16	17	17	6.7	-2.7
축산물	11	8	9	25	25	123.9	-1.2
가공식품	487	578	667	552	544	11.6	-1.5
임산물	622	667	788	720	678	9.0	-5.8

주 1) ()는 농식품 교역액에서 해당 부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6.3.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액은 2018년 2.1억 달러까지 증가한 다음 2019년 1.7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8억 달러 수준임.

-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의 주요 부류는 가공식품이며, 해당 부류가 2020년 기준으로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4%임.
- 가공식품 다음으로 임산물이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임산물 수출액은 2천만 달러임.
- 2020년 한국산 곡류, 과일·채소, 축산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각각 3백만, 6백만, 8백만 달러이고 가공식품 및 임산물 수출과 비교해서 큰 규모는 아님.

〈표 6-7〉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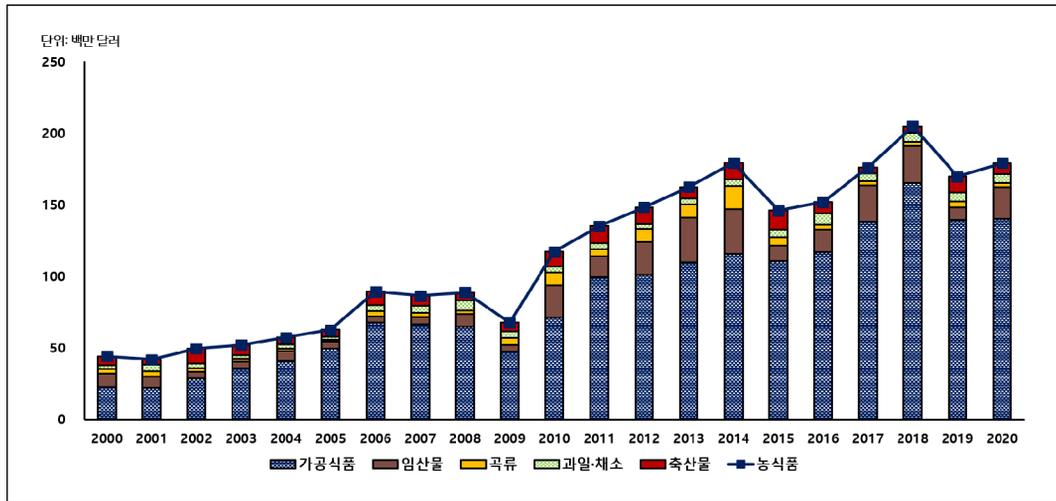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농식품	152	176	205	170	179	18.0	5.5
곡류	3 (2.1)	3 (1.5)	3 (1.6)	4 (2.3)	3 (1.6)	-9.5	-25.5
과일·채소	8 (5.3)	5 (3.1)	6 (2.9)	6 (3.8)	6 (3.3)	-25.6	-8.3
축산물	8 (5.1)	4 (2.5)	5 (2.4)	11 (6.6)	8 (4.3)	-0.2	-30.6
가공식품	117 (77.0)	138 (78.5)	165 (80.6)	139 (82.1)	140 (78.4)	20.1	0.7
임산물	16 (10.5)	25 (14.4)	26 (12.6)	9 (5.1)	22 (12.3)	38.8	153.3

주 1) ()는 농식품 수출액에서 해당 부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비중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6-4〉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2000~2020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2020년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1.4억 달러이며, 2016년 대비 20.1%, 전년 대비 0.7% 증가함.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조제품, 혼합조제식료품, 기타 사료용조제품, 라면 등임.

- 對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커피조제품의 2020년 수출액은 3.5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0.3% 증가하였지만, 전년 대비 7.7% 감소함.
- 對인도네시아 커피조제품의 수출액은 2018년 4.2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커피조제품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으로 해당 품목의 2020년 수출액은 2.5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8.0%, 전년 대비 9.2% 증가함.
- 2020년 對인도네시아 기타 사료용조제품과 라면의 수출액은 각각 1.3천만 달러, 1.2천만 달러이며, 해당 품목들이 對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0%, 8.5%임.

〈표 6-8〉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주요 가공식품 수출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가공식품	117	138	165	139	140	20.1	0.7
커피조제품	35	41	42	38	35	0.3	-7.7
혼합조제식료품	21	21	25	23	25	18.0	9.2
기타 사료용조제품	18	19	17	12	13	-30.2	1.8
라면	11	14	18	22	12	6.7	-45.2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 2020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임산물 수출액은 2.2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38.8%, 전년 대비 153.3% 증가함.

- 對인도네시아 임산물의 주요 수출 품목은 판지, 기타 제재목, 침엽수단판, 기타임산물이며, 2020년 기준으로 판지 수출액이 對인도네시아 임산물 수출액의 78.2%를 차지함.
- 對인도네시아 판지의 2020년 수출액은 1.7천만 달러이고, 2016년 대비 78.9%, 전년 대비 441.6% 증가한 규모임.
- 對인도네시아 판지 수출액은 2018년 1.9천만 달러에서 2019년 3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판지 전체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⁵²⁾

- 對인도네시아 기타 제재목의 수출액은 2018년까지 49만 달러 내외 수준이었으나, 2019년 117만 달러, 2020년 119만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對인도네시아 기타 제재목의 수출 증가는 HSK 4407.93.0000⁵³⁾의 수출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對인도네시아 침엽수단판의 수출액은 2018년 170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86만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對인도네시아 기타임산물 수출액은 338만 달러로, 2016년 對인도네시아 임산물 수출액의 21.2%를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2만 달러 수준임.

〈표 6-9〉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주요 임산물 수출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임산물	16	25	26	9	22	38.8	153.3
판지	10	20	19	3	17	78.9	441.6
기타 제재목	0	0	1	1	2	459.1	68.6
침엽수단판	1	1	2	1	1	65.9	57.3
기타임산물	3	2	2	1	0	-93.6	-69.9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 2020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곡류 수출액은 293만 달러로 2016년 대비 9.5%, 전년 대비 25.5% 감소하였고, 주요 수출 품목은 밀, 옥수수전분 등임.

- 對인도네시아 밀과 옥수수전분의 2020년 수출액은 對인도네시아 곡류 2020년 수출액의 98.6%를 차지함.

○ 對인도네시아 과일·채소의 수출액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0년 수출액은 594만 달러로 2016년 대비 25.6%, 전년 대비 8.3% 감소한 규모임.

52) 2018년 한국의 對세계 판지 수출물량은 74만 톤이었으나, 2019년 39만 톤으로 47.1% 감소함.

53)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HSK 4407.93.0000은 단풍나무[아세르(Acer)종]를 의미하며, 인도네시아 수입 관세율은 한·ASEAN FTA 협정문에 따라 0%임. HSK 4407.93.0000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물량은 2018년 59톤(13만 달러)에서 2019년 225톤(66만 달러), 2020년 282톤(94만 달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對인도네시아 과일·채소 수출의 주요 품목은 딸기, 팽이버섯 등임. 對인도네시아 딸기 수출은 대부분 HSK 0810.10.0000⁵⁴⁾이며, 한·ASEAN FTA 협정에 따라 한국은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음.
- 對인도네시아 팽이버섯의 수출액은 2019년 19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 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4%, 2016년 대비 20.6% 감소함.
- 對인도네시아 과일·채소 수출에서 배는 2016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16년 325만 달러에서 2020년 53만 달러로 83.5% 감소함.

○ 2020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축산물 수출액은 776만 달러로 2016년 대비 0.2%, 전년 대비 30.6% 감소함.

- 對인도네시아 축산물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및 가죽 등이고, 주요 품목들의 수출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6-10〉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주요 곡류, 과일·채소, 축산물 수출 동향(2016~2020년)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곡류	3,234	2,662	3,199	3,929	2,926	-9.5	-25.5
밀	1,267	1,304	1,893	2,195	1,854	46.3	-15.5
옥수수전분	1,820	1,157	1,189	1,287	1,032	-43.3	-19.8
과일·채소	7,979	5,399	6,027	6,475	5,940	-25.6	-8.3
딸기	533	685	892	899	1,286	141.3	43.1
팽이버섯	1,160	1,380	1,594	1,893	921	-20.6	-51.4
배	3,246	913	662	715	534	-83.5	-25.3
축산물	7,772	4,358	4,819	11,171	7,757	-0.2	-30.6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1,533	397	1,897	5,708	4,468	191.4	-21.7
가죽	4,162	2,969	2,201	4,900	1,895	-54.5	-61.3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54)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HSK 0810.10.0000은 초분류 딸기를 의미함.

○ 추가적으로 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관심 품목이고, ② 수출 규모가 다른 과일 품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③ 한·인니 CEPA 발효 후 관세가 인하될 예정인 딸기, 배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급 및 교역 현황을 살펴봄.⁵⁵⁾

- 인도네시아는 한·인니 CEPA에서 한국산 배의 관세 철폐와 딸기의 관세를 3년 철폐하기로 협의함. 이에 따라 한·인니 CEPA 발효 이후 인도네시아로 우리나라의 배와 딸기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딸기 생산량과 수입량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으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딸기 생산량은 2016년 8천 톤에서 2020년 1만 2천 톤으로 44.8% 증가하였고, 수입량도 2016년 66톤에서 2020년 197톤으로 199.7% 증가함. 딸기 수출량은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

-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딸기 수입량은 2016년 5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07톤까지 증가함. 2016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주로 딸기를 미국에서 수입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수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함.

〈표 6-11〉 인도네시아의 딸기 수급 현황(2016~2020년)

단위: 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딸기 생산량	8,350	7,501	8,531	12,225	12,091	44.8	-1.1
딸기 수출	3	2	0	0	0	-85.4	29.4
딸기 수입	66	106	137	199	197	199.7	-1.1
한국	5	44	86	89	107	1,979.7	19.5
미국	60	52	40	34	62	3.4	83.4
호주	-	8	8	24	28	-	14.7
중국	-	-	-	48	-	-	-100.0
기타	1	2	3	4	1	-19.3	-82.9

주 1) 기타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아시아 국가, 폴란드, 스페인, 태국임.

2)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Statistics Indonesia(<https://www.bps.go.id/>, 검색일: 2021. 12. 31.);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2. 31.).

55) HS 6단위 기준으로 배는 HS 0808.30, 딸기는 HS 0810.10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음.

○ 인도네시아의 배 소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⁵⁶⁾

- USD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다음으로 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자국 내 배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⁵⁷⁾
- 인도네시아의 배 수입은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95.8% 수입하고 있으며, USDA에 따르면 배 최대 생산국가인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배 수입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배 수입량은 2016년 1,216톤으로 인도네시아 배 수입 물량의 1.2%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 수입량은 220톤으로 2016년 대비 81.9% 감소함.
- 인도네시아는 배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인니 CEPA 등을 활용하여 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6-12〉 인도네시아의 배 교역 현황(2016~2020년)

단위: 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배 수출	-	2	1	0	-	-	-
배 수입	99,654	167,476	186,317	167,685	216,881	117.6	29.3
중국	83,494	155,511	176,417	155,904	207,730	148.8	33.2
한국	1,216	413	267	222	220	-81.9	-1.0
기타	14,944	11,551	9,633	11,559	8,932	-40.2	-22.7

주 1) 기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등임.

2)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2. 31.).

56) 인도네시아의 배 생산량, 재배면적 등의 자료를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 제시하지 못함.

57) USDA, Fresh Apples, Grapes, and Pears: World Markets and Trade(2021. 12. 10.)의 보고서를 참고함.

6.4.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 동향

○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8년 14억 달러까지 증가한 다음 2020년 12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함.

-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의 주요 부류는 임산물과 가공식품임. 2020년 기준, 해당 부류들이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3%, 34.0%임.
- 임산물과 가공식품 다음으로 곡류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4%임.
- 인도네시아산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입은 인도네시아산 임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며, 해당 부류들이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각각 0.9%, 1.4%임.

〈표 6-13〉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 동향(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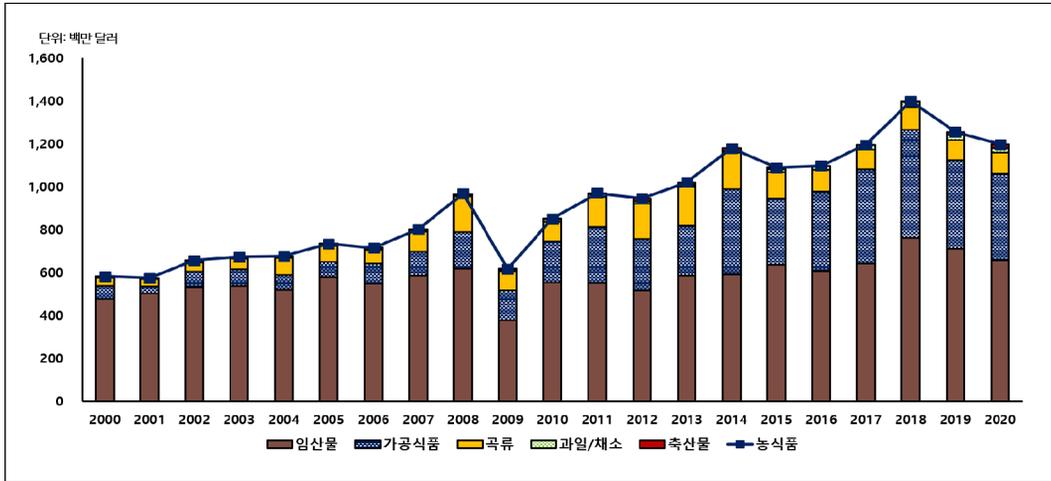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농식품	1,089	1,187	1,384	1,241	1,187	9.0	-4.3
곡류	102 (9.3)	91 (7.6)	106 (7.7)	93 (7.5)	100 (8.4)	-1.7	7.9
과일·채소	8 (0.7)	12 (1.0)	10 (0.7)	11 (0.8)	11 (0.9)	40.9	0.7
축산물	3 (0.3)	3 (0.3)	5 (0.3)	14 (1.1)	17 (1.4)	423.0	22.6
가공식품	370 (34.0)	440 (37.0)	502 (36.2)	413 (33.3)	403 (34.0)	8.9	-2.2
임산물	606 (55.7)	641 (54.0)	762 (55.1)	711 (57.3)	656 (55.3)	8.2	-7.7

주 1) ()는 농식품 수입액에서 해당 부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비중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6-5〉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 동향(2000~2020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산물의 2020년 수입액은 7억 달러로 2016년 대비 8.2% 증가하였지만, 전년 대비 7.7% 감소함.

- 인도네시아산 임산물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과 펄프이고, 임산물 수입 품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합판의 2020년 수입액은 3억 달러로 2016년 대비 22.6%, 전년 대비 3.7% 증가함.
- 합판 다음으로 수입 규모가 큰 품목은 펄프로 인도네시아산 펄프의 2020년 수입액은 2억 달러이고,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6-14〉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주요 임산물 수입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임산물	606	641	762	711	656	8.2	-7.7
합판	200	214	275	237	246	22.6	3.7
펄프	195	204	228	206	166	-14.8	-19.7
성형목재	68	83	87	84	82	21.1	-2.3
톱밥	10	14	32	32	36	275.8	10.9
기타 임산물	41	34	35	47	34	-18.1	-27.6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 인도네시아산 가공식품의 2020년 수입액은 4억 달러이고, 2016년 대비 8.9%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2.2% 감소함. 주요 수입 품목은 팜유, 혼합조제식료품, 야자유 등임.

- 인도네시아산 가공식품 수입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팜유의 2020년 수입액은 2억 달러로 2016년 대비 40.3%, 전년 대비 4.9% 증가함.
- 인도네시아산 혼합조제식료품의 2020년 수입액은 6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0.3% 증가하였지만, 전년 대비 6.1% 감소함.
- 인도네시아산 야자유의 수입액은 2017년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인도네시아산 야자유의 수입액은 3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41.8%, 전년 대비 27.2% 감소함.

〈표 6-15〉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주요 가공식품 수입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가공식품	370	440	502	413	403	8.9	-2.2
팜유	134	165	224	180	189	40.3	4.9
혼합조제식료품	51	49	52	60	57	10.3	-6.1
야자유	52	81	73	41	30	-41.8	-27.2
기타 제조담배	0	0	5	18	22	224,637.7	18.0
커피	11	13	12	11	11	-7.3	-6.9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 인도네시아산 곡류의 2020년 수입액은 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나, 2016년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규모임.

- 인도네시아산 파암넛유박(HSK 2306.60.0000)⁵⁸⁾의 2020년 수입액은 7천만 달러로 2020년 인도네시아산 곡류 수입액의 약 68.3%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파암넛유박의 인도네시아산 수입액은 2016년 대비 30.1%, 전년 대비 21.5% 증가한 수준임.

58)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따르면 HSK 2306.60.0000은 팜 너트(plam nut)나 핵에서 나온 것을 의미하고, 인도네시아산 파암넛유박은 HSK 2306.60.0000 세번만 수입되고 있음.

〈표 6-16〉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주요 곡류 수입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곡류	102	91	106	93	100	-1.7	7.9
파암넛유박	52	50	63	56	68	30.1	21.5
밀기울	19	15	13	9	15	-18.4	70.1
야자·코프라박	23	17	23	22	10	-54.9	-52.4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 인도네시아산 과일·채소 및 축산물의 2020년 수입액은 각각 2천만 달러 내외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과실과 기타 동물성유지 등임.

- 인도네시아산 과일·채소의 주요 수입 품목인 기타 과실의 2020년 수입액은 8백만 달러로, 2016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24.9% 감소함.
- 인도네시아산 축산물의 주요 수입 품목인 기타 동물성유지의 2020년 수입액은 1천만 달러임. 인도네시아산 기타 동물성유지는 2019년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 이전 주요 수입 품목은 가죽, 동물의 건과 근 등이었음.

〈표 6-17〉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주요 과일·채소 및 축산물 수입 동향(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6	'20/'19
과일·채소	16	20	24	25	21	31.8	-14.1
기타 과실	8	7	12	11	8	2.6	-24.9
축산물	3	3	5	14	17	423.0	22.6
기타 동물성유지	0	0	0	10	13	34,192.2	28.2

주: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된 수치임. 따라서, 표에 제시된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내부자료.

7

요약 및 결론

7.1. 요약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호주와 접함. 국토 면적은 1,904,569km²,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임.
 - 전체 인구의 43.4%(2020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농촌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1980년대로 농촌인구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 584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870달러, 경제성장률은 -2.1%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의 농지 면적은 6,230만 ha로 국토 면적의 32.5%이고, 농지 면적 가운데 경작면적은 2,630만 ha로 농지 면적 대비 42.2% 수준임.
- 2019년 재배 면적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목은 팜유 열매이고, 그 다음으로 쌀(벼), 옥수수 등의 순임. 축산업의 축종별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사육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닭이고, 그다음으로 오리, 염소, 양 등의 순서임.

- 인도네시아는 열대지역의 기후 조건 아래 플랜테이션 형태의 농업이 발전하였으며, 플랜테이션 형태의 주요 생산 품목은 팜유, 고무, 코코넛, 사탕수수, 커피 등임.
- 인도네시아의 2020년 농식품 교역액은 497억 달러로 그중 농식품 수출액이 63.8%, 농식품 수입액이 36.2%를 차지함.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식품 교역액은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의 69.0% 수준이며, 수출액은 23.1%, 수입액은 150.1% 수준임.
 - 인도네시아의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317억 달러이며,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의 주요 품목은 동식물유(HS 15류) 등임.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농식품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파키스탄 등이며, 중국으로 51억 달러, 인도로 35억 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주요 수출 상위 5개 품목 가운데 동일 품목으로 나타난 것은 기타조제품과 담배임.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수출 대상 국가 중 상위 5개 국가를 살펴보면, 동일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 주로 기타조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으로는 과실조제품을 수출함.
 - 인도네시아의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180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곡물(HS 10류), 조제사료(HS 23류), 당류설탕(HS 17류) 등임.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농식품의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며, 2020년 기준 미국과 중국으로 각각 27억 달러, 25억 달러 규모의 농식품을 수입함.
 - 인도네시아로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입 품목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상위 5개 품목 가운데 동일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상위 10개 품목은 확대하여 살펴보면, 기타조제품, 담배, 종자대두, 당류설탕, 조제사료가 동일 품목으로 나타남.
- 한·인도네시아 간 농식품 교역액은 한국의 전체 농식품 교역액의 평균 3.5% 수준이며,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액은 2018년 16억 달러까지 증가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임.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액은 2016년 1.5억 달러에서 2018년 2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1.8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2020년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1.4억 달러이며, 2016년 대비 20.1%, 전년 대비 0.7% 증가함.
-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2018년 14억 달러까지 증가한 다음 2020년 12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부류별 수입 규모는 임산물,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 과일·채소의 순서임.
- 한·ASEAN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임산물 주요 수입 품목인 합판, 펄프, 성형목재 등과 주요 수입 가공식품(팜유, 혼합조제식료품, 야자유, 기타 제조담배, 커피 등)의 관세는 인하되었거나 철폐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없다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열대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임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과일(신선)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캐슈너트, 코코넛, 파인애플에 대한 사전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

- 인도네시아의 농업 정책은 식품법(Food Law, 2012)에 기초에 기초하여 식량자립과 식량주권을 목표로 함.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쌀과 설탕에 대한 최저 보장가격 구매, 농업 투입재 보조를 위한 재정마련, 관개, 연구·개발, 유통·홍보를 통한 농업 지원 정책이 실시됨.
- 2019년에 식량보조 프로그램이 기존의 Rastra에서 BPNT로 전환됨. BPNT는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의 공동 프로그램임.
- 식량 자급을 위하여 쌀, 옥수수, 대두, 설탕 쇠고기 등 전략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 주요 식량 작물의 수출과 수입은 국내 시장여건에 따라 시행되며 국내 식량공급과 생산기반 지원을 동시에 고려함.

- 농산물 수입 관세는 알코올음료나 주정을 제외한 농식품에는 MFN(Most Favoured Nation) 관세가 적용됨. 다만, 쌀과 설탕에 부과되는 관세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 또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량 제한과 수입 면허 제도가 시행되며, 해당 품목은 쌀, 설탕, 쇠고기가 대표적임.
- 플랜테이션 작목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팜유(Crude Palm Oil: CPO)와 파생제품, 코코아가 대상 품목임. 수출세에 관한 내용은 무역부 장관령(MoT regulations 67/2010, 136/2015)에 규정됨.

7.2. 결론

- 인도네시아에서 플랜테이션으로 대표되는 상업작물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작·소농이 담당하는 식량작물은 경쟁력이 낮고 공급부족인 상황이 혼재되어 있음. 이런 이유로 식량작물에는 정책지원을 통해 생산을 장려하고, 플랜테이션 작물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는 경쟁력을 갖춘 품목과 경쟁력 열위 품목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인도네시아 국내 농식품 공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경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기타조제품과 담배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개척 및 시장 확대를 꾀할 때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품질, 생산 시스템, 소비자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곡물 중 동일한 품목은 그 밖의 파스타와 기타 베이커리제품임. 해당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수출 규모가 큰 상황임. 다만, 향후 세계 교역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농식품의

중국 시장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할 때 인도네시아 품목에 대한 중국 내 소비자 선호, 품질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과실조제품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보다 수출 규모가 2.1배 더 큼. 다만, 인도네시아는 열대과일을 생산하는 국가임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과실조제품에 대한 수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때 인도네시아 과일의 생산량, 품목, 품질, 단가, 미국 내 소비자 인식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농식품 교역은 큰 규모가 아님. 따라서 단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한·인니 CEPA를 통해서 과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관심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고,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어 농식품 소비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향후 농식품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2020년 기준 對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기타조제품, 담배, 종자대두, 당류, 설탕의 수출 규모는 크지 않고, 해당 품목의 인도네시아 수입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음에 따라, 향후 수출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제사료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액이 12.2%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조제사료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조제사료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품질, 가격 등 해당 국가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 요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현재 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인니 CEPA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관심 품목인 딸기와 배는 향후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산 딸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⁵⁹⁾으로 나타났고,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딸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용항공기

59) 한국일보(2021. 2. 4.)의 “‘딸기는 맛있어’ 인식 바꾼 한국 딸기” 기사 내용을 참고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210300004681>).

지원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⁶⁰⁾과 농가들의 인도네시아 소비자 선호도(크기, 당도 등)가 높은 딸기 생산, 저온냉장체계 개선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배의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는 주로 중국에서 배를 수입하고 있음. 다만,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배 수입 국가(러시아 1위)이고, 한·인니 CEPA로 인해서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임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및 중국산 배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선호 요인(품질, 당도, 가격 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신선 농산물 이외에 라면도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계라면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에 따르면 라면 소비 순위는 중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주요 라면 소비는 나시고랭 등 볶음면이 강세를 이루고 있으며, 부드러운 맛보다 매운맛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음.⁶¹⁾ 이러한 소비자 선호와 인도네시아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점을 고려한 시장 진출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60) 현재 정부는 COVID-19 대응 및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해서 홍콩과 싱가포르로 딸기 수출 전용항공기를 지원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의 딸기 전용 항공기,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까지 띄운다! 보도자료 참고).

6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0)의 『2020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내용을 참고함.

참고문헌

- 허장·이대섭·김종선·김윤정·최민정·조선미·안규미. 2017.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국별보고서)』, P24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선·최정만. 2020.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인도네시아』, R91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성태·이현근·이수환·유정호. 2016. 『농업부문 한·아세안 FTA 이행 실태와 시사점』, P2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OTRA. 2020.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9-103. KOTRA.
- 서일교. “인도네시아 농업 및 농식품 교역.” 『세계농업』 제14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유선.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20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2020 해외시장 맞춤조사』 No. 202008-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ASEAN FTA 주요 내용: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형정·상품무역협정』,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 2005. 『한·ASEAN FTA 상품협정서 부속서 2』.
- 관계부처 합동. 2020.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
- BPS-Statistics Indonesia. 2016. *STATISTIK INDONESIA;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16*.
- BPS-Statistics Indonesia. 2017. *STATISTIK INDONESIA;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17*.
- BPS-Statistics Indonesia. 2018. *STATISTIK INDONESIA;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18*.
- BPS-Statistics Indonesia. 2019. *STATISTIK INDONESIA;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19*.
- BPS-Statistics Indonesia. 2020. *STATISTIK INDONESIA;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20*.
- BPS-Statistics Indonesia. 2021. *STATISTIK INDONESIA;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21*.
- OECD. 202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ing Food Systems.” OECD Publishing, Paris.
- USDA. 2021. “Fresh Apples, Grapes, and Pears: World Markets and Trade.” World production, Markets, and Trade Report.
- WTO. 2020. “Trade Policy Review: Indonesia.” WT/TPR/G/401.

〈참고 인터넷 사이트〉

- FTA강국, KOREA. “한·인도네시아CEPA 상세 설명자료” <<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3/id/2/>>. 검색일: 2012. 10. 28.
- FTA강국, KOREA. “한·인도네시아CEPA 일지.” <<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3/id/1/>>. 검색일: 2012. 10. 28.
- 가루다항공. <<https://www.garuda-indonesia.com/kr/ko/index>>. 검색일: 2021. 10. 26.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12. 10. 28.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1. 11. 2., 11. 10.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개관.”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916114918937.pdf&rs=/viewer/result/202203>>. 검색일: 2021. 11. 10.
- 한국일보. 2021. 2. 4. ““딸기는 맛없어” 인식 바꾼 한국 딸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210300004681>>. 검색일: 2021. 12. 31.
- KOTRA.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동향.”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5436>>. 검색일: 2021. 10. 27.
- FAOSTAT. <<https://www.fao.org/home/en>>. 검색일: 2021. 10. 20., 10. 28., 11. 25.
- The World Bank Database. <<https://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21. 10. 26., 11. 2.
- STATISTICS INDONESIA. <<https://www.bps.go.id/>>. 검색일: 2021. 10. 20., 12. 31.
-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10. 27., 11. 2., 11. 29., 12. 31.
- 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 <<https://instantnoodles.org/en/>>. 검색일: 2021. 12. 31.
- OECD PSE database. <<https://www.oecd.org/chile/producerandconsumersupportestimatesdatabase.htm>>. 검색일: 2021. 11. 3.

KREI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www.krei.re.kr



9 791161 495590
ISBN 979-11-6149-55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 820-2211